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社會背景/211

方 言/221

民 謠/239

說 話/270

信 仰/290





대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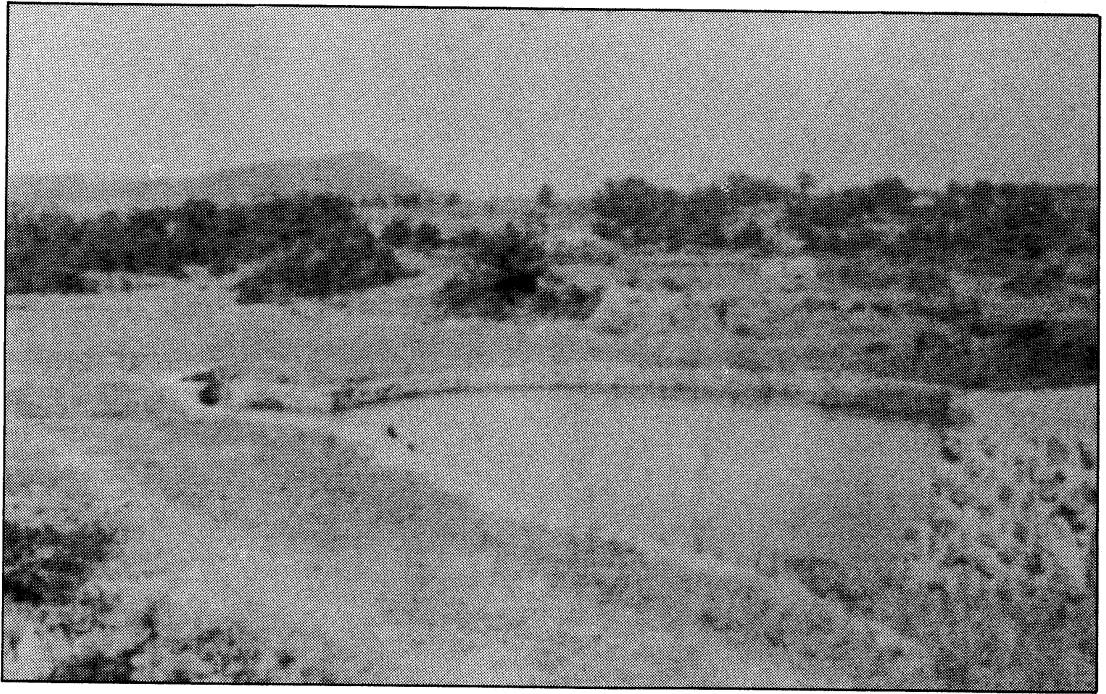
무지개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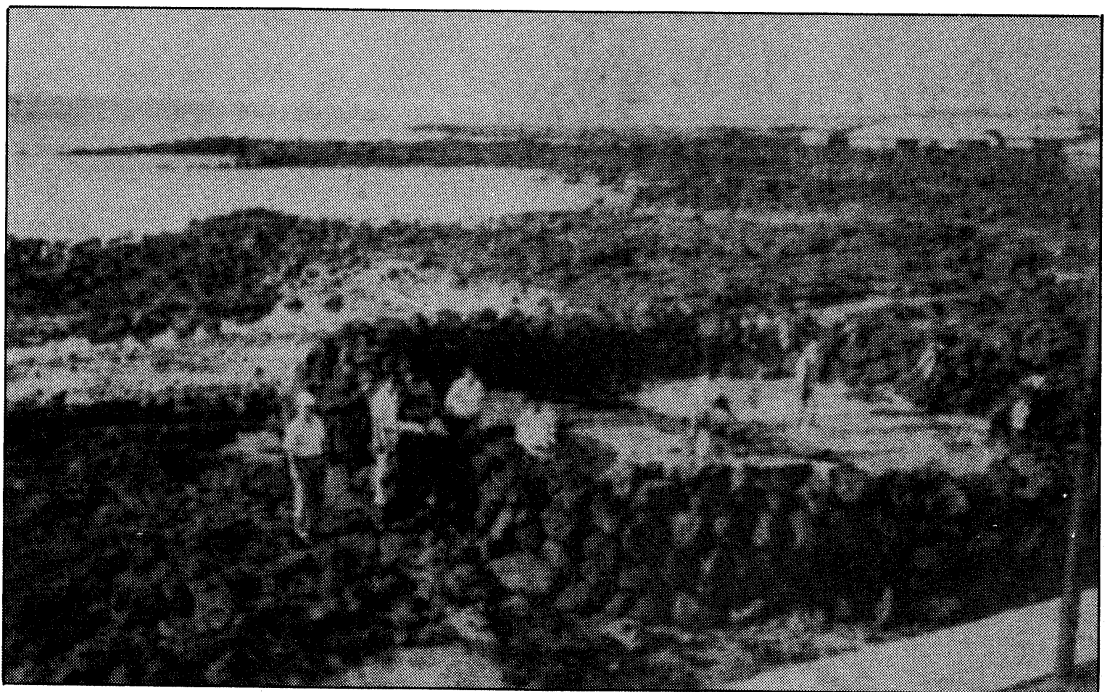
굽드레기물



바다에서 본 마을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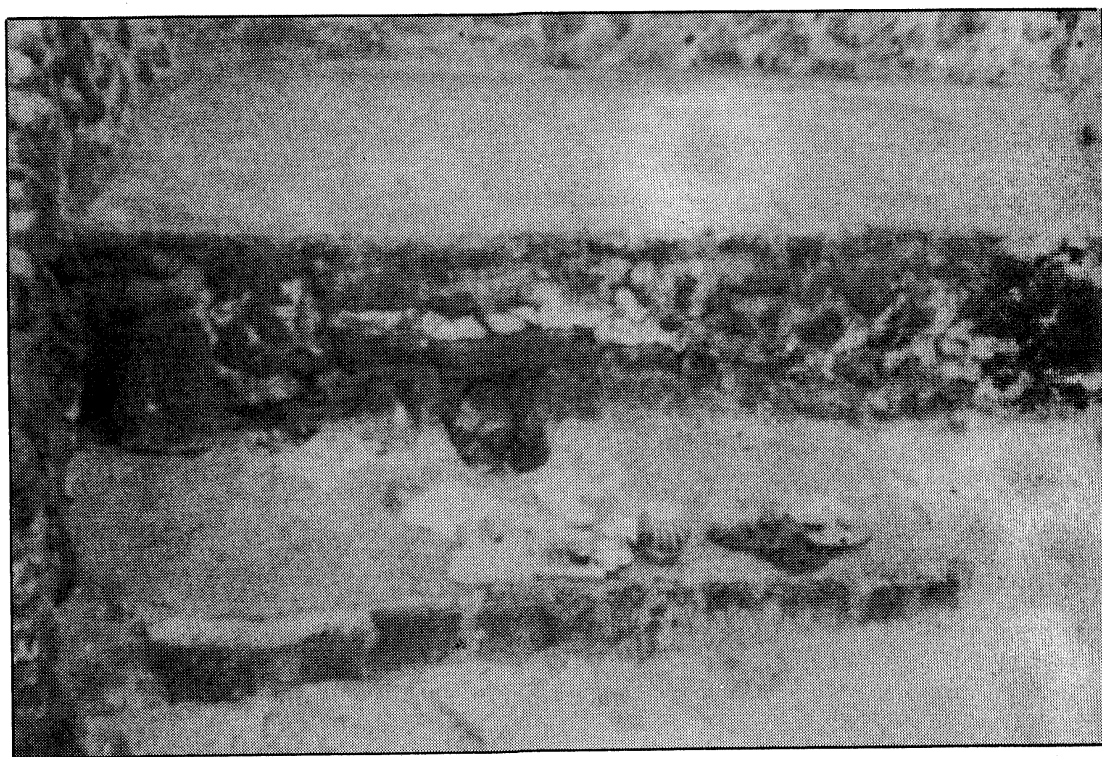
대왕이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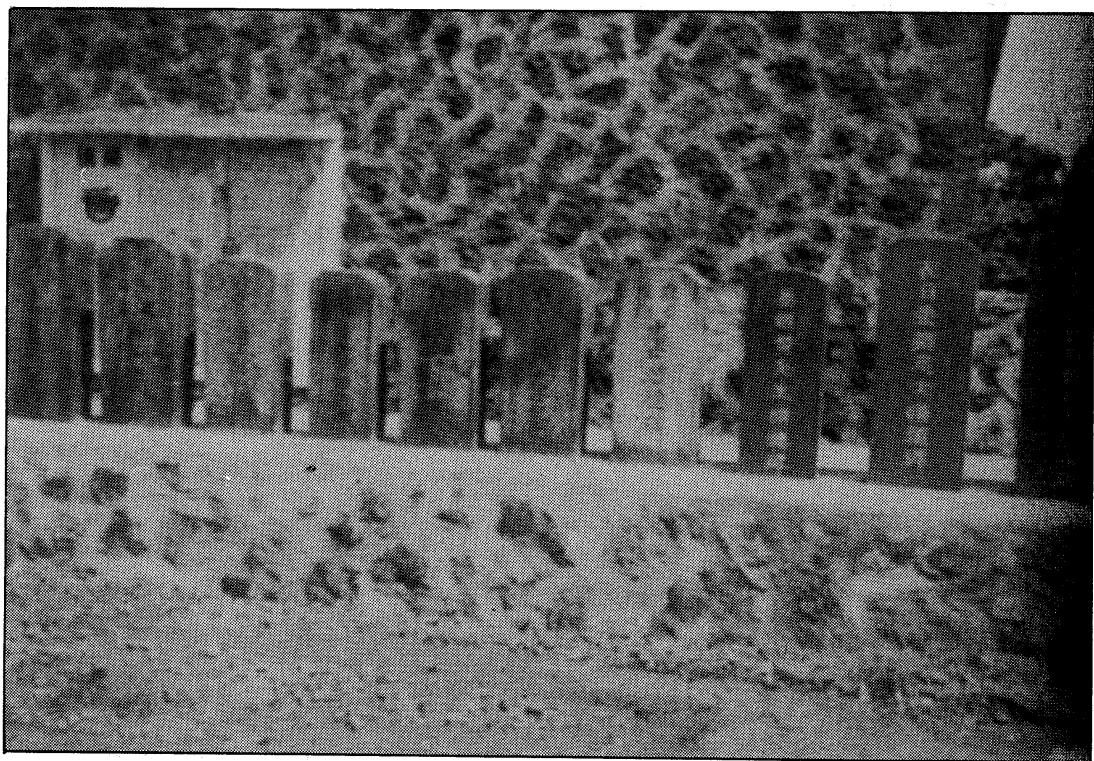
크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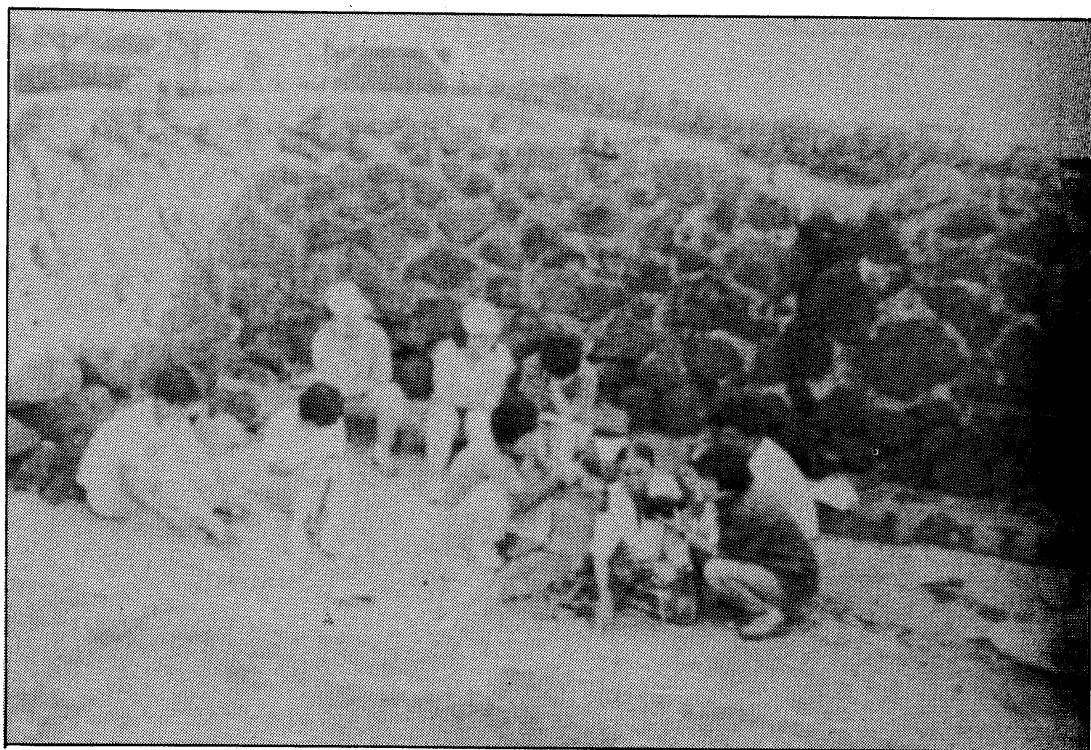
귀덕포교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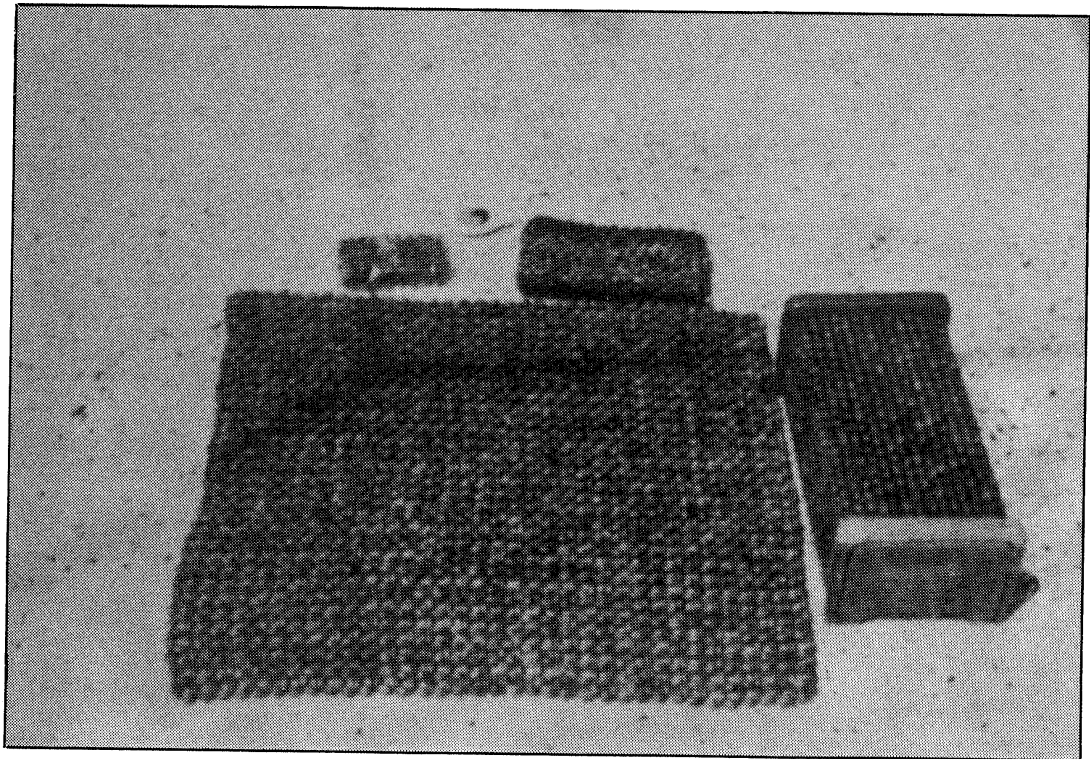
할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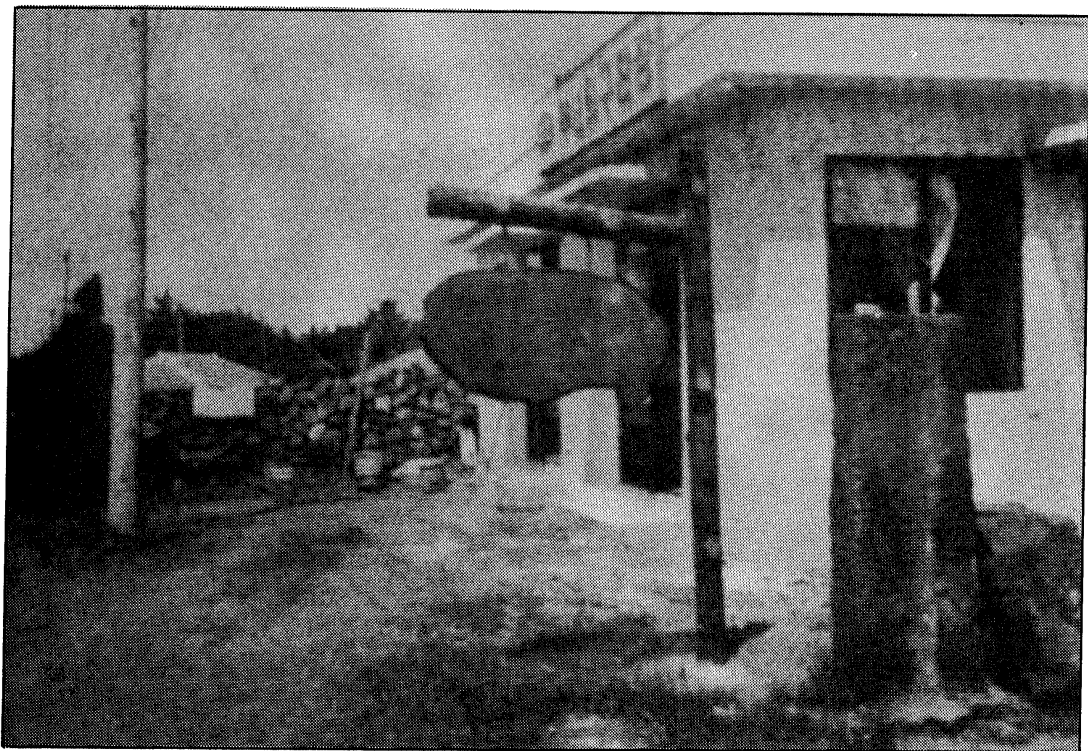
신흥동 비석거리



조사광경



털구슬공예



범죄없는 마을 : 신흥동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社 會 背 景

指導教授：金 昞 澤

指導補助：李 正 鎰

班 員：金 昌 好 (4)

金 孝 貞 (3)

玄 忠 烈 (3)

金 亨 政 (2)

金 玉 三 (2)

吳 淑 泳 (2)

李 美 貞 (1)

目 次

I. 地理的 環境

III. 人文概況

II. 歷史的 背景

IV. 產業構造

I. 地理的 環境

濟州市에서 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歸德里는 北濟州郡 翰林邑에 속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歸德1里·歸德2里·新興里를 포괄한다.

총면적 614.2ha인 이 마을은 원래 10개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마을이었으나 1932년 행정구역 재편성에 의해 해안가에 자리잡은 長興同·長羅洞이 歸德2里로 분리되었으며, 1960년 산간 부락인 멀왓과 한다니가 新興里로 분리되어 현재 3개 里·8개 洞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 면적과 구역은 <표1>·<표2>와 같다.

濟州島部落誌(Ⅳ)

〈표1〉 면 적

자료 : 귀덕향토지 (귀덕국민학교, 1987)

구 분 행정구역	총 면 적	전	답	임 야	기 타
귀 덕 1 리	299.6	231	0.6	5	63
귀 덕 2 리	120.9	98.6	1.5	15	5.8
신 흥 리	193.7	130.7		30	33
계	614.2	460.3	2.1	50	101.8

〈표2〉 구 역

자료 : 귀덕향토지 (귀덕국민학교, 1987)

구 분 행정구역	동 (洞) 수	반 (班) 수	동 이 름
귀 덕 1 리	5	36	사동, 하동, 중동, 성로동, 신서동
귀 덕 2 리	2	15	장흥동, 장라동
신 흥 리	1	9	신흥동
계	8	60	

귀덕리의 경계는 동쪽으로 錦城里와 정지내를 경계로 하여 涯月邑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洙原里와 大林里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냇물이 흐르는 것을 경계로 上大里와 접해 있다.

제주도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기생화산이 많이 분포하는데 귀덕리는 광활한 마을임에도 산이 거의 없고 경사가 완만하다.

예전에는 귀덕리를 石淺村이라 하였는데 石淺이란 이름은 귀덕1리 바닷가에 있는 두개의 여(큰여, 작은여)를 石淺島라 부르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전해지지만 확인할 수 없으며, 귀덕1리의 바닷가 마을은 복덕개라고 불리어져 온다.

귀덕리의 지세는 臥虎之勢(호랑이가 누운 형태)라고도 하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말처럼 내려오는 형세라고도 한다. 실제로 '물코비'라는 지형은 말의 발자국과 같다는 것이지만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제보자; 조용봉, 男, 77세)

귀덕리에 있는 지명들을 살펴 보면 알동네(下洞), 짓골동네(寺洞), 닥커리(四岐洞), 모살동네(沙洞), 중동네(中洞), 잣질동네(城路洞), 새시막을(新西洞), 진질(長路洞), 나신비(羅新洞), 멀왓(新興洞) 등이 있는데 이들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 알동네(下洞); 바닷가에 위치한 동네이므로 알동네(下洞)라고 한다.
 - 젓골동네(寺洞); 예전 이 동네에 대사찰(大寺刹)이 있었으므로 절고을(절골)동네(寺洞)라고 한다.
 - 니커리(四岐洞); 예전 이 동네에 네거리길이 있었으므로 니커리(四岐洞)라고 한다.
 - 모살동네(沙洞); 이 부락 토질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으므로 모살동네(沙洞)라고 한다.
 - 중동네(中洞); 부락의 중앙에 위치하고 鄉舍가 있었으므로 중동네(中洞) 또는 도가집동네라고 한다.
 - 잣길동네(城路洞); 지금은 흔적이 없으나 잣(城) 위로 통행하는 길이 있었으므로 잣길동네(城路洞)라고 한다.
 - 새시믈(新西洞); 마을 서쪽에 새로된 부락이라 하여 새시믈(新西洞)이라고 한다.
 - 진질(長路洞); 예전에는 장로동(長路洞)이라고도 하였는데 해안까지 내려가는 긴 길이 있다 하여 유래된 것이다.
 - 나신비(羅新洞); 동네 이름의 유래는 미상이다.
 - 신흥리(新興里); 말왓(馬屹洞)과 한다니(多橋洞) 두 동네로 이루어졌다. 해방후에 합하여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동이라 하여 귀덕4구라하다가 신흥리로 되었다.
- 귀덕리에는 해안가에 ‘크니물’, ‘굽드레기물’, ‘언덕물’, ‘죽은물’ 등을 비롯하여 물이 솟는 곳이 많은데 특히 ‘굽드레기물’은 옛부터 이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한다고 할 만큼 유명하다.

II. 歷史的 背景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상고에는 귀덕리를 石淺村이라 불렀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기 1211년 고려 熙宗 7년에 제주에 현을 두게 되자 중국의 重慶地方의 지방명을 따서 歸德縣이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명명의 이유는 옛부터 이곳에서 무인 및 학자의 배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귀덕리는 이미 고

濟州島部落誌(Ⅳ)

려조에 縣村으로서 지방행정 체제의 운영을 하였다. 이 때의 촌락은 니커리와 중동네에 이루어졌었다.

이후 1273년 삼별초의 항쟁이 끝난 후 원이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라 하여 군민달노화적 총관부를 설치하였을 때 이때부터 귀덕리에도 원의 불교가 점차 들어와 니커리에 큰 절을 지었고 당수덕에 신당을 세웠으며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射場과 煙台와 望台를 설치해서 해상방위와 교통통신의 요새지로 마을을 이루어 왔다.

17세기초 縣制를 폐하고 坊里制를 설치하면서 귀덕현은 귀덕리로 개칭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귀덕리도 점차 큰 마을로 변해 가고 동네들도 붙어나는 가운데 警民長, 또는 里長이 里政을 책임 관리하였다. 일정시대에는 귀덕리를 4區로 분할하여 里長 산하에 區長制를 두었으니 1區에는 中洞·下洞·沙洞을, 2區에는 長興洞·長羅洞을, 3區에는 城路洞·新西洞을, 4區에는 馬屹洞·多橋洞(漢橋洞)을 포괄하였다. 그러다가 1·3·4區가 歸德一里로, 2區가 歸德二里로 분리되었고 1960년 4區가 新興里로 독립되므로써 현재 3개리로 나누어졌다.

귀덕1리에는 마을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대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큰 기러기가 앉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전승되기도 하는데 견강부회인듯 하다.(제보자; 조용봉 77세) 그리고 여기에는 봉천수가 고인 못과 몇그루의 나무가 우거진 제단이 있다. 또한 귀덕국민학교 구내 뒷동산에 있는 귀덕연대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연기와 봉화로써 동쪽으로는 애월연대에 알리고, 서쪽으로는 소뫼연대(牛池煙台)에 알렸다고 한다. 귀덕2리 장로동 일주도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뫼연대(牛池煙台)는 현재 유적지로 복원되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신흥리는 '87년 현재 가구수 119호에 인구 488명으로 타도에서 들어온 3가구를 제외하고는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이곳 출생이다. 산간 부락이 대부분 그렇듯이 4·3사건 당시에 피해가 많았으며 해안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2년간 선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Ⅲ. 人文概況

귀덕리는 3개리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27일 현재 가구는 833호이고 인구는 3,363명이다.

〈표3〉 가구 및 인구

자료 : 1987년 한림읍사무소

구분 행정구역	가 구	인 구		
		계	남	여
귀 덕 1 리	484	1,902	925	977
귀 덕 2 리	230	973	469	504
신 흥 리	119	488	228	260
계	833	3,363	1,622	1,741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가구 및 인구현황에서는 귀덕1리가 484가구에 총인구 1,902명으로 제일 많고 신흥리가 제일 적다. 그리고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성씨분포

성 씨 행정구역	金	李	洪	姜	高	康	梁	文	趙	朴	玄	辛
귀 덕 1 리	399	236	178	97	100	4	98	53	48	31	31	·
귀 덕 2 리	273	80	81	7	64	25	31	13	27	46	·	3
신 흥 리	28	75	11	·	29	100	34	3	·	2	·	·

성 씨 행정구역	宋	夫	尹	曹	鄭	申	張	吳	池	邊	任	崔
귀 덕 1 리	24	20	18	·	15	25	14	8	8	7	6	4
귀 덕 2 리	23	9	·	4	1	3	5	3	·	·	28	18
신 흥 리	2	·	·	·	·	1	13	·	·	3	4	·

濟州島部落誌(Ⅳ)

행정구역 \ 성씨	林	秦	孔	左	男	安	禹	漢	權	白	孫	河
귀덕 1 리	·	5	4	3	2	2	2	2	1	1	1	1
귀덕 2 리	11	·	·	1	·	6	·	·	·	·	1	1
신 흥 리	·	8	·	·	1	2	·	·	·	·	·	·

행정구역 \ 성씨	許	全	車	俞	黃	都	徐	蔡	郭	計
귀덕 1 리	1	1	1	1	4	·	·	·	·	
귀덕 2 리	·	·	1	·	2	1	1	·	·	
신 흥 리	·	·	·	·	1	·	1	4	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귀덕1리에는 金氏 姓이 399名으로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李氏姓도 236名에 달한다. 그리고 洪氏姓이 178名이나 되는 것이 한가지 특징이며 신흥리에는 康氏姓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年齡別 人口現況

자료: 1987 년 리사무소 제공

구분 \ 행정구역	0 ~ 4	5 ~ 9	10 ~ 14	15 ~ 19	20 ~ 24	25 ~ 29	30 ~ 34
귀덕 1 리	47	95	151	186	143	96	118
귀덕 2 리	30	65	83	98	104	61	28
신 흥 리			34	60	50	28	15
계	77	160	268	344	297	185	161

구분 \ 행정구역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귀덕 1 리	62	68	84	66	111	38	55	114
귀덕 2 리	26	42	28	52	41	32	44	72
신 흥 리	17	23	25	24	20	14	15	26
계	105	133	137	142	172	84	114	212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귀덕1리에 현재 위치한 歸德國民學校는 1940년 사립인 귀덕심상소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45년 지금의 校名으로 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8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男學生이 126名, 女學生이 145명으로 다소 女學生이 많은 편이다. 1981년 설립된 귀덕유치원은 같은 해 귀덕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원아수는 25명이지만 그 인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촌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학 졸업자는 소수에 해당된다. 즉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

〈표6〉 文化施設

구분 행정 구역	전화	신문	전축	칼라 T·V	흑백 T·V	V·T ·R	피아 노	세탁 기	선풍 기	냉장 고	이륜 차	화물 차
귀 덕 1 리	32	14	3	38	35	3	·	2	70	65	3	2
귀 덕 2 리	23	7	4	29	12	1	1	1	42	39	4	1
신 흥 리	18	12	2	17	11	·	·	1	26	14	1	

가정의 문화혜택은 거의 대부분 TV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문을 구독하는 가수도 현재 30여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풍기 및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또한 구비되어 있으며 많은 가정에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농촌과는 달리 마을안의 곳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에 편리를 주고 있다.

관공서로는 각 마을에 리사무소가 있어서 크고 작은 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역시 농업에 걸친 전반적인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자금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근래에는 신흥리에 감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감귤선과장이 설치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한림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에도 대부분 한림에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 丙에 이발소를 두고 있다.

濟州島部落誌(Ⅳ)

歸德里는 대부분 佛敎를 믿고 있으며 基督教人과 天主教人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이전에 토속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렸던 영향으로 여전히 외래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현재 佛敎는 귀덕1리에 귀덕포교당을, 귀덕2리에 海雲寺를 두고 있는데 그 信徒는 귀덕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널리 타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基督教는 정식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귀덕교회가 나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신자가 있다.

이러한 公認宗敎 이외에 堂祭를 지내던 '할망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언급되고 있다.

Ⅳ. 産業構造

귀덕리의 산업구조는 主農副漁인데 해안과 접한 귀덕1리와 귀덕2리는 어촌계를 조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半農半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바다와 떨어진 新興里나 歸德一里의 성로동·신서동 등지에서는 농사에만 힘쓴다.

1962년 조직된 귀덕1리 어촌계는 1978년 10월 한동 법인 어촌계로 개칭되어 귀덕리 및 한림 6개 자연부락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1985년 2월 21일 경영난 부실로 한동 어촌계가 해산되고 귀덕1리 어촌계, 귀덕2리 어촌계로 재조직되었다. 귀덕1리 어촌계 회원은 '87년 현재 101명, 귀덕2리 어촌계 회원은 157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표7〉 농기구 현황

자료 : 한림읍 읍사무소(1987년)

구 분 행정구역	동 력 절단기	예취기	동 력 탈곡기	농 용 원동기	동 력 경운기	농 용 양수기	동 력 분무기
귀 덕 1 리	6	40	8	2	77		36
귀 덕 2 리	3	16	5	3	28	1	27
신 흥 리	3	15	9	5	29		21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표8〉 어업수입

자료 : 한림읍 읍사무소(1987년)

행정구역	구분 계(천원)	어획						양식	
		돔류		잡어		생선		투스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생산	금액
귀덕리	44,986	450	4,950	3,200	6,400	1,800	7,200	-	-
귀덕2리	62,711	1,200	13,200	4,700	9,400	2,850	11,400	2,860	7,436
신흥리									

행정구역	구분 계(천원)	양식					
		소라		전복		기타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인원	금액
귀덕1리	44,986	1,282	5,236	320	6,304	2,800	14,896
귀덕2리	62,711	1,240	5,065	169	3,309	2,425	12,901
신흥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획에서의 수입은 돔류, 잡어, 생선에 치중하고 있으며 양식에서의 수입 톳, 소라, 전복 등에서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덕1리와 귀덕2리는 주요작물 이외에 양파, 양배추, 원예 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한다. 근래에는 귀덕2리에서 영지버섯과 파인애플 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출하를 하여 톳당 3~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외에도 70여명의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어 1가구당 총수입 정도는 450만원이 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근래에는 신흥리 일대에서는 감귤소득이 높은 반면 소, 돼지 등의 가축사육 정도는 대단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업을 살펴보면 정동모자와 멸구슬공예가 있는데 정동모자 등의 몇가지 제품은 제주도의 토산품으로 품질이 좋고 빛깔이 대단히 곱다. 1년 내내 한가한 틈을 타서 이 제품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료는 들판에 자라고 있는 멍멍이덩굴을 이용한다. 귀덕1리 잣질동네(城路洞)를 중심으로 이처럼 멍멍이덩굴을 이

濟州島部落誌(Ⅳ)

용한 '관광토산품이 결어지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곧 농부들이 쓰는 제주도 고유의 패랭이인 이른바 '정동벌립'(정당벌립)이 제주도내에서도 유독히 귀덕1리 잣질동네에서 결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네의 洪萬年씨(귀덕리 1578번지, 1910년 9월 26일생)는 1986년 4월 濟州道無形文化財 제8호 '정동벌립匠' 技能保有者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는 멸구슬나무 열매의 씨를 이용하여 멸구슬 공예가 귀덕2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아주 높으며 자연 고유의 색상과 촉감이 우수하다. 주로 베개, 벽걸이 장식, 지갑, 염주, 쇼파방석, 등받이, 시트커버 등을 만들고 있다. 이 멸구슬 공예로 1985년~1986년, 제2회~제3회 올림픽 기념품 전시회 및 제15회~제16회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제주도 북군 도예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북군 한림읍 귀덕리 1036 창영공예)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方 言

指導教授：金 洪 植

金 光 雄

姜 榮 峯

班 員：金 香 錦 (3)

夫 守 那 (3)

李 斗 仁 (1)

高 銀 卿 (1)

張 希 禎 (1)

朴 珍 炯 (1)

金 玉 順 (1)

玄 文 嬉 (1)

目 次

I. 語彙

III. 地名・風名

II. 植物名

IV. 農機具

○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는 1987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서 조사한 지명, 식물류명, 농기구명, 가축, 가옥구조 등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귀덕리는 귀덕1리, 귀덕2리, 신흥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덕1,2리는 제주도의 대부분의 마을처럼 반농반어의 생활형태를 지닌 부락이고 신흥리는 축산·원예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로써 식물류명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濟州島部落誌(Ⅳ)

조사에 임하면서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제주도의 식물도감, 농기구의 그림, 귀덕리의 지도를 준비하였다. 그것들을 이용하여 면접을 통해 어휘들을 채록해 나가면서 조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 과정을 녹음기에 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지조사에서는 첫 날에는 사전조사로 어휘·지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식물류·농기구의 부분명칭까지 채록해 나갔다.

한국방언조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어휘들은 어느 정도 쉽게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고 농기구에 있어서도 그 사진들이 他지역의 사진들이어서 제주도와는 부분적으로 달랐지만 보충설명을 곁들이다보니 복잡한 농기구의 부분적인 명칭들을 채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식물류名인 경우에는 칼라사진으로 되어있는 식물도감을 이용하였지만 사진을 통해서도 서로 식물들이 비슷비슷하고 조사에 임한 반원들도 처음보는 식물들과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모자라 보충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진에만 의존하다보니 方名을 채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방법을 달리하여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께는 소가 먹는 풀들을, 할머니들께는 밭에 나는 잡초들을, 어부들께는 해초이름들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풀이름들을 조사해갔고 직접 주위의 풀들을 뜯어다 보이면서 채록해 나갔다. 그리고 귀덕리의 마을구역이 넓어서 계획적으로 귀덕1,2리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신흥리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으면 부족한 식물류명에 있어서는 보다 많고 정확한 이름들을 채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명에서는 마을별로 귀덕1리, 2리, 신흥리를 구분하여 따로 채록하였고, 마을의 경계, 땅이름 뿐만 아니라 바다이름, 바람이름 등도 조사하였다.

위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류와 참고 어휘들도 함께 채록해 나갔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그동안 막연히 느껴왔던 지역들간에 방언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방언들 차이의 요인들과 함께 제주도 방언연구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I. 語 彙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벼	나룩, 나룩	
2	팽 과리	쟁, 팽 과리	
3	쟁 기	쟁 기	
4	써 레	설 레	
5	호 미	몰쟁이	
6	낫	호 미	
7	삼	삼	
8	쇠스랑	쉐시랑, 소시랑	
9	팽 이	목쟁이, 곡쟁이	글쟁이
10	벧가리	눌	노람지를 여꾼다, 보리낭눌, 보리낭뭇, 노람지, 주쟁이, 곡지, 생이방석
11	벼훤이	클, 가래기클, 보리클	
12	새 끼	노, 노곤	노꾼다, 어울린다, 칩노, 질빵, 호랭이
13	도리깨	도깨, 태작	마당질, 도깨질 *해야도 흥야
14	명 석	명 석	
15	짚방석	독석, ㄹ랫방석	
16	맷 돌	맷 돌	우착(위), 알착(아래), 옷ㄹ래착, 알ㄹ래착, 채(사이), 조록(손잡이)
17	키	푼체, 푸는체	
18	까불다	푼다, 푸는체질	
19	어레미	대 체	얼맹이, ㄹ는체, 대거름체, 중체, 총체
20	보 리	보 리	
21	맥주맥	줄보리	
22	대 맥	걸보리	
23	소맥, 밀	술보리	
24	감부기	간베기, 간비억	
25	발이랑	고지 이렁	
26	발고랑	고 랑	
27		멍에질	발이랑의 양끝에 가로 갈아진 곳

濟州島部落誌(Ⅳ)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28	조	조	맛시리, 개발실이, 모인조, 호린조, 조코고리
29	수수	대죽, 사당대죽	빳대죽, 왕대죽, 호모작 (마디)
30	수숫잎	고고리	
31	옥수수	창남대죽, 강낭대죽, 대죽부르기, 깡냉이	대죽쉬엄, 대죽부르기쉬엄
32	무 우	눔 빼	눔빼쌌, 초마기, 드르노물, 노물쌌, 여 름눔빼, 혼몹
33	감 자	지실, 지슬	
34	고구마	감자, 감저	감저 메 놓는다, 썻감저 * 감저모종 놓 아시냐? 흐랑흐랑 해져
35	가 지	가 지	
36	콩나물	콩노물, 콩지름, 콩주름	콩주름 놓는다, 콩노물 질룬다, 콩노물 키 운다, 콩노물 대맹이, 대가리, 밭 * 콩노물 꼭지 다듬아불라
37	오 이	웨	물웨, 춤웨
38	토마토	일년감	
39	솔	쑤	시치다(썻다), 쑤천, 쑤덕, 말치(4.5식 구), 두말떠기(제일 큰 솔), 죽은쑤(국, 찌개) *가망뒤에 정지내가 시번터지면 쑤썻어 어픈 다
40	조 리	조루, 조록	
41	주 격	울금, 우금	썻울금, 낭울금, 배수기(밥 짓는 것), 국자, 남자(나무로 만듦)
42	솔뚜껑	쑤뚜껑	뜸재우다(뜸들이기), 부쿨래기 * 밥개 엄시매 썻놓으라
43	항아리	황, 항	망대기, 단지(젓), 도가리, 대바지(허벅 小), 춘(술)
44	부 역	정 지	
45	아궁이	쑤강알	
46	연 기	네	
47	그을음	그슬렁	
48	부지깽이	부지땡이	
49	고무래	당그네, 서얼레	굴루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50	화 로	화 리	정동화리, 지췌화리
51	재	불치, 불채	불수까락, 불깁, 부제
52	석 쇠	적 췌	
53		살 레	* 살레아래 족제비 잡으라. 죤팍, 대왓새기, 짐작기
54	찾 방	찾 방	
55	담뱃대	통 대	
56	부 시	부들, 부췌, 부새, 부들	불쩍, 미승불
57	불 목	굴 목	
58	괘	괘	
59	자물쇠	통 췌	
60	열 쇠	열췌, 궤장석, 채장석	
61	베 개	베 게	목침, 낭베게, 목탕, 죽침
62	마 루	산 방	돌낭간
63	미달이	밀 창	호령창(마루에 있는 문)
64	여달이	창	
65	돌쩌귀	돌철귀, 갈췌, 돌쳐귀	암돌철귀, 솟돌철귀
66	귀 알	비알, 비차락, 비 아리	풀뺨세기, 박세기
67	벽	백	
68	지계문	지계문, 지레문	
69	흙 손	흑손, 마께	남손(나무), 췌손(쇠)
70	섬 돌	이잇돌	
71	지 봉	지 봉	
72	집입구	을 레	
73	사닥다리	사드레, 산태, 사 다리	
74	기와집	기와집, 기왓집, 지에집	
75	헛 간	막사리, 막살이	

濟州島部落誌(Ⅳ)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76	초가집	초가집, 초집	초막살이, 울담
77	대 문	정 낭	정주목
78	기 등	지동, 지등	상머루(가로), 중머루(중간), 서리(세로), 개윗도리, 대들포, 문지방이, 문입장이
79	주춧돌	꽃지동	도리지동
80	장독대	장항띠	* 뒤에강 장 걸어오라
81		우엉빋, 우영빋	울타안에는 자그마한 밭
82	변 소	통시, 통생이	
83	두레 박	바가지	
84	다듬잇돌	안반, 돛배	덩드렁(돌)
85	방망이	세담마께, 방명이	덩드렁마께, 방애편(곡식), 남방애편(나무), 물 2래(연자방아)
86	다리미	다루훤, 다리훤	
87	인 두	운 디	
88	허리띠	허리띠	
89	두루마기	창옷, 후리매	창신, 두루막곰
90	고쟁이	고장중이, 바지중이, 굴중이	
91	버 선	보 선	
92	대 님	다림, 다임	다림친다
93	갓	입젓	
94	깃	젓	
95	지팡이	지팡이, 주랑	
96	망 건	망 긴	
97	마고자	마구자	
98	조 끼	쨌끼, 쫄끼	
99	바 지	바 지	접바지, 소개바지(솜), 누비바지
100	짚 신	짚 신	
101	나막신	남 신	
102	재봉틀	재봉침, 미승	
103	골 무	골매, 지환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04	가 위	꺾웨, 가우	
105	등 잔	등잔, 쉼유각지	
106	누 에	누 에	
107	고 치	고치, 고추	
108	번데기	누에뽕롱이	
109	뽕 앞	뽕썰, 뽕낭입, 뽕 이파리	* 뽕낭입 강 토당오라
110	세면기	세숫대야	노젓다
111	머리빗	얼레기	챙빔
112	공 기	공 기	
113	고 누	꼬저, 꼬녀	
114	목 마	청개고개	
115	목	야 게	
116	자치기	자치기	
117	재기차기	조끼차기, 조기차기	
118	웃	웃, 웃놀이	유빵, 웃물, 물그리다
119	그 네	그네, 추천	
120	썰 매	능끄렁	
121	팽이치기	팽이치기	
122	팽이줄	팽이채	(재료) 솔나무, 종나무
123	얼 레	걸레, 얼레	
124	연	연	개구리연, 돌연(가오리연)
125	연 줄	연 줄	
126	꾸러미	퀘 미	죽(솔가락), 단(보리짚), 바리
127	병	술 팽	
128	고 기	퀘 기	
129	생 선	웅토미, 옥뜸게	물인어(비늘無)
130	추	뽕 돌	
131	지느러미	등줄가시, 등솔	
132	아가미	아구리, 아궁이, 쿠쌍이	
133	날 개	날 개	

濟州島部落誌(Ⅳ)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34	조 리	꼴랭이	
135	미꾸라지	미꾸라지	
136	올챙이	멘죽이	
137	개구리	골게비, 두태비	
138	맹꽁이	맹마구리	
139	갈 치	갈 치	
140	가오리	가오리	
141	게	깁 이	펼깁이, 뚱깁이
142	새 우	세워, 사우	
143	다슬기	웬보말, 생이보말	수드리, 곰생이, 먹보말, 문다조리(=군보말)
144	달팽이	돌팽이, 돌뱅이	집있는 돌뱅이
145	벼 록	베록, 베록	
146	모 기	모 기	
147	파 리	꼭리, 파리	
148	잠자리	밥주리	
149	매미	제 열	맹꽁이 재열, 꽃제열, 왕제열
150	거미	거 미	
151	메뚜기	만축, 말축	
152	방아개비	심 방만축	
153	버마제비	꼭제기, 당넝이	
154	여 치	물만축	
155	소금쟁이	물방개	
156	반딧불	불한디	
157	벌	벌, 꿀벌	청벌, 사상벌, 왕벌
158	멍 에	멍 에	
159	소	쉐	암쉐, 부룽이
160	송아지	송애기	
161	구 유	구시, 출통	
162	고양이	고앵이	
163	닭	삭, 숙, 식	
163	닭	독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번호	표준어	방 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65	벼 슬	고 달	독고달, 알고달, 웃고달
166	병아리	빙아리, 비애기	독구덕
167	돼 지	돼야지, 도세기, 돼야지	자리돼야지 * 자웅철왕 시명가키여
168	여 우	여우, 여회	
169	노 루	노루, 노리	
170	쥐	중이	
171	박 쥐	도람쥐	
172	다람쥐	도람쥐	
173	두더지	쥐 다리	
174	참 새	참생이	
175	솔 개	출 매	똥소로기
176	까 치	까 치	
177	빼꾸기	빼꼭새	
178	핍	핍	암핍, 장핍
179	해바라기	해바라기	
180	국화리	꽃개, 풀철귀	물물철귀
181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생이죽박
182	냉 이	난쟁이	
183	도 끼	도 치	쉐감, 새감
184	글쟁이	글쟁이, 글쟁이	
185	그루터기	낭둥치, 둥치, 통 치뿌리	
186	홍 수		큰물 터지다
187	희오리바람	독궁이 주재	
188	무지개	황고지	
189	풍 깨	풍채기, 물풍쟁이	

제보자: 梁禹鐘(男·68)

金昌彦(男·73)

Ⅱ. 植 物 名

- | | |
|----------------------------|-------------------|
| 7. 향나무썩 | 149. 춤비늬, 춤비늬 |
| 8. 물풀 | 152. 물모작쿨 |
| 11. 베채기 | 156. 뽕비늬 |
| 14. 고사리 | 164. 더덕, 진풀 |
| 15. 고사리 | 171. 연꽃 |
| 16. 당낭(풀고사리, 들칸고사리) | 173. 아이모리탈 연꽃 |
| 17. 고사리 (당낭종류) | 204. 줄쟁이(요름) |
| 18. 알릅, 험염고사리, 험엿고사리 | 207. 정동(춤정동, 참정동) |
| 22. 춤고사리 | 208. 개정늬 |
| 23. 가마기족박 | 233. 난쟁이꽃 |
| 31. 허공고사리 | 555. 저신살이 |
| 34. 동낭, 당낭, 독낭 | 603. 솔꼬대기 |
| 43. 멀렛줄 | 609. 푸개니낭 |
| 46. 들록, 들흑 | 643. 태채기, 배차기 |
| 61. 노가리 | 653. 풀찰귀낭, 두개니낭 |
| 63. 솔뿌, 봉오지낭, 향낭, 삼백초, 소낭뿌 | 758. 소앵이꽃 |
| 68. 메물꽃, 메밀, 모목꽃 | 759. 가마귀바눔 |
| 69. 오동개비, 개제 피낭 | 807. 절막이 |
| 75. 자귀낭 | 811. 제안지, 산구짓풀 |
| 87. 도토리낭 | 815. 가마귀바눔 |
| 103. ~수썩 | 816. 조고락풀, 고랏 |
| 107. 모심이낭 | 823. 새 |
| 110. 게낭, 진 | 824. 어욱 |
| 111. 모신입, 모신당 | 848. 새악시풀 |
| 123. 한바쿨 | 873. 도채비끈낭 |
| 124. 생게 | 〈소먹이는 풀〉 |
| 126. 개상게, 개생게 | 걱정동 |
| 127. 태역, 태역씨 | 썩 절레기 |
| 132. 물마직쿨 | 고네할미 |
| 138. 마꽃 | 참정동 |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꼭석쇄	<기타>	오차
억새풀(푸석사)	개성개	좀너콩
목추(목촌)	곤냉이	담쟁이
송학	피	삼수대
담장이	개비벌레	금과태
칙	천상쿨	근관소
소쇄출(건초)	췌비늬	보쿨
기름소세, 왕소세, 대죽소세	췌터럭	밭스양이
머옥세	췌털게	황고지
<해초>	출비늬	물검질, 물검질이
노랑괭이	제한지	솔똥
노랑망	가마귀외쭈	솔이파리
감태	콩쭈	상고지
매역	배차기	난쟁이풀
몹(고지기, 실쟁이, 이름몹)	당낭	유채
듬북	돛새	재낭
메산	꺾랏	선인장
파래(강이파래, 농파래, 총파래, 늪)	숙, 숙, 쭈	몽쿠슬낭
청각(개청각, 도채청각, 조청각, 물청각)	섬싸리	풍나무
<겨울검질>	역귀	아까시낭
췌비늬	상고지	실겉이낭
소시리쿨	뽕이	스앵이
제한니	글력푸리	소시락쿨
난지풀	고니할미	난지쿨
개낭	독낭, 닥낭	할미꽃
고대썩	생게	걱정등
천상쿨	힘니왔고사리	췌절레기
수우		
삼마		
조팍검질		
조코닷		
살마		
물웃		

제보자 : 송여량(女 · 70)

홍정표(男 · 73)

김정량(女 · 75)

김문하(女 · 79)

조영남(男 · 48)

* 번호는 <제주도의 식물도감>의 일련번호임.

Ⅲ. 地名・風名

● 귀덕 1리

1. 가운모기 ○ 남신질왓 :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남승이 있었다.
2. 간중이 : 난중이, 난종이 ○ 재뽏거리
3. 갯동네 ○ 너븐밭
4. 강력지 : 신서동 북쪽에 있는 밭
5. 구랭이굴
6. 갯동네 : 갯가에 있는 동네
7. ㄱ는길 : 중동, 동카름 동쪽에 있는 밭으로 가느다란 길가가 됨.
8. 쾌승장
9. 당애엿
10. 동백낭거리 : 동백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
11. 동웃질동산
12. 동호징, 돈지 : 할망당이 있는 곳
13. 대뱅이 (대벙이)
14. 대웅이 : 대왕이
15. 돌섬 : 귀덕포 동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외딴섬. 지형이 동그랗게 생겼음.
16. 마구못 : 물을 말에게 먹이던 못
17. 마깨동산
18. 마홀동 : 멀왓, 몰왓, 모홀왓
19. 문미들락 미역동산, 장더기왓
20. 문밧골 : 중동서쪽에 있는 밭, 옛날에 성문이 있었다.
21. 복덕개
22. 바께
23. 보모리왓
24. 병다니 : 병마께, 망바께
25. 복덕동산
26. 빌레물
27. 새길드르 : 새길가에 있는 들이라는 데서 유래
28. 승지막울, 승지모를
29. 새설동산 : 新設동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30. 서들왓 새실믓을 : 신서동
31. 승밭 제비새미
32. 새소믓리
33. 새설 : 사동(沙洞) 모래가 많음. 마을이 생긴지 70 여년 밖에 안됨.
34. 연화못(연화지) : 연꽃이 있었던 샘. 연화도수형이 있는데 그곳에 못이 있었다.
35. 옥터(獄) : 감옥이 있었던 곳
36. 안갯 : 큰개아래 안쪽에 있는 개
37. 열왓동산
38. 아흙굴밧 : 새설동쪽에 있는 밧, 아흙층으로 된 굴밧이 됨.
39. 어렁문채 : '魚龍文彩'형의 명당이 있었다 함.
40. 염지모루
41. 온믓들왓 : 웃머들왓. 머들이 있는데 여자의 웃처럼 생겼다 함.
42. 원당
43. 왕다리
44. 존나시
45. 적굴동네 : 寺洞, 절이 있었다.(중국사람의 절)
46. 작은여
47. 잣질동네 : 중동남쪽에 있는 마을. 옛잣(성) 밑으로 길가가 됨. 성로동(城路洞)
48. 조애, 조해, 조예 : 새설 서쪽에 있는 밧. 조효자 비가 있다.
49. 청개못
50. 채승장
51. 채머리
52. 채근여
53. 팡거리, 팡노로, 팡노루 : 미역동산 북쪽에 있는 들로써 사람들이 모여 쉬고 노는 자리(땅)가 있었다.
54. 화장물
55. 횡개못, 행개못

○귀덕 2리

1. 개여기동산
2. 고생이부리
3. 거신물 : 장흥동 동쪽에 있는 우물, 물이 거슬러 흘러감.
4. 검은여 : 장흥동 옆에 있는 여로써 빛이 검다.

濟州島部落誌(Ⅳ)

5. 거머리벌레
6. 괴물수덕 : 초소산
7. 논알원
8. 나신동 : 나신비라 하기도 한다. 논을 기준으로 하여 수원리와 구분된다.
9. 너븐빌레
10. 당수덕 : 장흥동 남쪽에 있는 밭. 당집이 있었다.
11. 망밭
12. 마근창
13. 망전동
14. 무지개동산
15. 버들못 : 버드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
16. 병단원
17. 분동산 : 장로동과 장흥동 사이에 있는 등성이
18. 버영못
19. 밥주리못
20. 쇠죽은동산 : 당수덕 동쪽에 있는 등성이. 소가 죽었음.
21. 서근여 : 서끝여
22. 사원이원
23. 소원
24. 서들왓
25. 손들코지
26. 상개동산, 상계동산
27. 소못지(소못논)
28. 스못지낭
29. 스로기집동산
30. 연대동산 : 장로동 서남쪽에 있는 등산. 봉화대(연대)가 있었다.
31. 양개동산 : 장로동 남쪽에 있는 등성이. 양가의 땅이었음.
32. 염소모루 : 염소처럼 생겼다 함.
33. 인수원
34. 이죽은밭
35. 원나래
36. 이장이원
37. 양지빌레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38. 좌중이왓
39. 진질
40. 진질코질
41. 재석동산
42. 정어리수덕
43. 진동산
44. 책망원
45. 창란거리못
46. 창덕이왓
47. 펄목
48. 큰산목
49. 흑죽못, 흑죽물(정우리)
50. 풍채앞
51. 한질이원
52. 항벌러진물

○ 신흥리

1. 강덕새미 : 신흥동 서북쪽에 있는 샘. 강씨가 땀다.
2. 새질드르 : 신흥동 동북쪽에 있는 새길가의 들
3. 배수기왓 : 신흥동 서북쪽에 있는 밭. 배수기의 땅이었음.
4. 새새미 : 신흥동 동북쪽에 새로된 샘
5. 북동동산
6. 중골못

○ 바람이를

1. 셋브름
2. 갈브름, 달브름
3. 마파람
4. 하늬브름(서하니, 갈하니, 눕하니)
5. 갈마브름 : 서남풍
6. 신셋브름
7. 산북쇠브름
8. 갈마파람

濟州島部落誌(Ⅳ)

9. 울지풍(한라산 봉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
10. 동하늬 : 늪새 바람
11. 넘친 브름 : 태풍
12. 댕 브름
13. 돛쟁이
14. 사타니

제보자 : 梁禹鐘(男 · 68)

高文昊(男 · 49)

洪義杓(男 · 71)

Ⅳ. 農 機 具

●쟁기부분 명칭

1. 망울
2. 멩에낭
3. 등괘걸이
4. 오랑배
5. 부림패
6. 버울래, 버얼래
7. ㄱ는낭(고는낭)
8. 성애, 성해
9. 양주머리 (14)
10. 오리목
11. 무쿨 (10)
12. 썰치, 설치 (19)
13. 호랑새역 (13)
14. 뱃
15. 뱃 바드랭이
16. 손비줄
17. 돌뱅이뿔

● 고무래의 부분 명칭

1. 글루네
2. 글루네 조륙
3. 설레, 서얼레(곡식 널때)

● 보리썰, 보리클

1. 가래기(쇠)
2. 궁기
3. 보리클발

● 도리깨의 명칭

1. 도깨어시
2. 도깨아덜
3. 도깨틀레 : (재료) : 솔피낭, 굴가시나무, 옥가시나무
웃노리

● 기타

1. 삼 : 갈래죽
2. 따비 : 따비(쌍따비, 외따비, 뱅줄레)

● 연자방어의 분해도

1. 알빠닥
2. 방애웃돌, 방애알돌
3. 안중실, 밧중실
4. 채경, 차경
5. 중실이구멍

● 쇠질매

1. 도금(보리매로 한것)
2. 등태(형겉으로 한것)
3. 고들대침, 고들개척

濟州島部落誌(Ⅳ)

4. 소용
5. 등울
6. 질매까지 (앞까지 뒤까지)

○ 지게

1. 지겟까지
2. 지겟새
3. 바지질이낭
4. 도금
5. 등태
6. 질빵
7. 지겟친
8. 새
9. 새트는 배

제보자: 金昌彦(男・73)

民 謠

指導教授：金 榮 敦
指導補助：尹 致 富
班 員：安 由 美 (4)
康 永 生 (3)
宋 先 禮 (3)
鄭 光 碩 (3)
金 京 宣 (1)
金 愛 蘭 (1)
金 英 實 (1)

- 目 次
-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 II. 勞動謠
1. 방앗돌 굴리는 노래
 2. 김매는 노래
 3. 밭 밟는 노래
 4. 맷돌노래
 5. 방아노래
 6. 해너노래
 7. 집터 다지는 노래
- III. 儀式謠
1. 행상노래
 2. 달구노래

- IV. 타령類
1. 오돌또기
 2. 서우젯 소리
 3. 각설이 타령
 4. 신세 타령
- V. 童謠
1. 줄넘기할 때
 2. 손놀이할 때
 3. 어회요
 4. 약올릴 때
 5. 자장가
 6. 기타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87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 동안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들이다.

濟州島部落誌(Ⅳ)

4일간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27일)

오전 11시 경에 임시숙소인 귀덕국민학교에 도착, 오후에 귀덕국민학교 교실에서 홍성아(여·13)를 비롯한 아홉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童謠를 채록했고, 저녁에는 歸德里 속칭 '대왕이'에서 고지영(남·57)·김중화(남·9)·고문호(남·49) 등의 제보자를 통해 〈行喪노래〉와 〈달구노래〉를 채록하였다.

제2일(28일)

오전은 본 민요반이 식사당번이었으므로 조사는 오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제보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녁에 두 군데에서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귀덕국민학교 자모회장실에서 모창열(여·60)·양정옥(여·60)·이호연(여·60) 등의 제보자를 통해 〈해녀노래〉·〈맷돌노래〉·〈김매는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이어 '대왕이'에서 이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홍춘송(남·67) 노인을 통해 〈방앗돌 굴리는 노래〉·〈밭 밟는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제3일(29일)

오전에 귀덕2리에 조사 나갔으나 별 성과가 없었는데, 무엇보다 제보자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홍성자(여·66) 노파를 만나 노상에서 〈맷돌노래〉와 〈해녀노래〉를 채록했다. 오후에는 전날 자모회장실에서 만났던 이호연 할머니를 찾아가 〈行喪노래〉와 雜謠를 채록하였다.

제4일(30일)

특별한 조사없이 그 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채록된 자료들은 민요와 동요의 사실 수록에 치중했으며, 채록된 민요나 동요 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것들만 수록하였다.

이번의 귀덕리 민요조사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그 조사대상의 폭을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넓혀 노동요·의식요·타령(唱民謠)을 망라했고, 요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희와 더불어 새로 번지는 동요까지 뻗었다. 둘째 노동요 가운데 들판에서 연자매(물방에·물궤)의 웃돌·알돌을 만들고는 이를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오면서 불리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제주도내에서도 펴 희귀한 바, 비록 단조로운 사설이나마 이를 채록할 수 있었으며, 여성노동요인 <맷돌노래>와 <방아노래>가 남성에 의해서 불린 자료를 확보한 점도 하나의 소득이었다. 세째는 현창론적 조사방법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사진행 상황과 제보자 소개를 덧붙여 보았다.

[제보자1]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 1리 1362번지

고지영, 남·57



귀덕1리 이장님의 소개로 만났다. 몸은 마른 편이었으나 목소리만큼은 우렁차고 심장을 파고드는 애절함이 있었다. 군대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고향을 지키며 농사짓는 자신들은 애국자라는 말까지 했다. 우리가 학생인 것을 감안한 듯대화 중에서도 표준말을 쓰려는 경향이 많았다. 슬하에 2남5녀가 있다고 했다.

제보자료: II 1, II 3-1, III 1-1, III 2, VI 1.

[제보자2]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301번지

김중화, 남·49



이분 역시 귀덕1리 이장님의 소개로 조사 첫날 속칭 '대왕이'에서 만났다. 고지영씨와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며, 호흡을 맞춰 노래해 주었다. 특히 메모까지 하고 나와 노래해 주는 열성을 보여 주었다. 작은 키에 다부진 표정이며 언행이 겸손한 편이었다. 김중화씨 역시 군대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슬하에 2남1녀의 자녀가 있다고 했다.

濟州島部落誌(Ⅳ)

대왕이의 흰칠한 나무들이 밤바람에 흔들거리며 반주해 주는 속에서 불리워진 김중화씨와 고지영씨의 〈行喪노래〉와 〈달구노래〉는 조사자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사설 한 마디 한 마디의 애절함과, 곡조의 애련함과, 노래하는 분들의 구슬픈 목소리는 한여름밤의 더운 공기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제보자료 : Ⅲ1-1, Ⅲ2.

[제보자3]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286번지
고문호, 남·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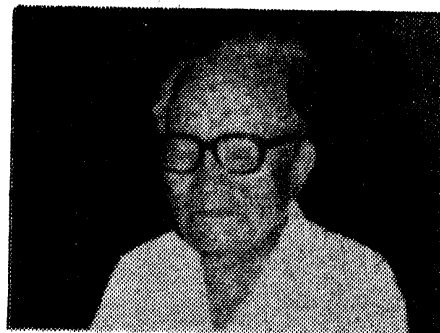


우리들의 조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분으로, 귀덕1리 이장과 한림읍 관내 새마을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국졸이라는 학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달변가였다. 고문호씨 역시 군대생활 외에는 고향을 떠나 생활해 본 적이 없으며, 2남1녀를 두었다고 했다. 민요는 잘 몰랐기 때문에 뒷소리만 불렀지만, 분위기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보자료 : Ⅱ1, Ⅱ3-1, Ⅲ1-1, Ⅲ2.

[제보자4]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607번지
홍춘송, 남·67.



이분 역시 귀덕1리 이장님이 소개해 주었는데, 젊어서는 중국·소련 등지까지 다녀왔노라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골의 완고한 노인을 만나는 느낌을 받았는데, 회쫂회쫂한 머리칼과, 검은 데 안경을 걸친 근엄한 표정, 억센 목소리 때문에 조사자들이 압도될 정도였다. 두 시간 남짓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매사에 치밀하고, 완고하며,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1남3녀를 두었으나, 외아들을 젊은 나이에 잃고, 지금은 막내딸하고 농사지으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다.

〈김매는 노래〉에 이어, 14살 때 불렀었다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애써 기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억해 내며 불러 주었는데, 노래하는 목소리는 썩 가라앉은 편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요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의 일을 거들면서 배웠다고 했다. 노래는 여러 종류 알 뿐만 아니라 잘 불렀으나, 사설을 길게 잇질 못했다.

제보자료 : II 1, II 2-1, II 3-1, II 4-1, II 5, II 7.

[제보자5]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036번지

이호연, 여·60.



귀덕국민학교 자모회장댁에서 모창열·양정옥 제보자 등과 같이 만났다. 젊어서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직한 외모였으며, 목소리 또한 시골아낙 같지 않게 고왔다. 친정은 제주시 화북동이며, 3남3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살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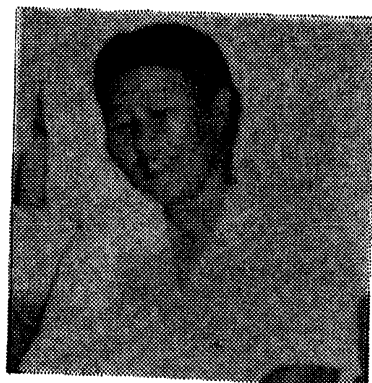
타령類는 많이 알고 있었으나 노동요를 잘 몰라 이유를 물었더니, 일을 억척스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 나이에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랐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분은 여성으로서 특이하게 혼자 〈行喪노래〉를 불렀는데, 귀덕리와 친정 근방의 〈行喪노래〉의 시작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정 근방은 뒷소리를 먼저 한다고 했다.

제보자료 : III 1-2, IV 2, IV 3, IV 4, V 3-2, V 4.

[제보자6]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모창열, 여·60.



듬직한 체구에 명랑해 보였지만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너무 타서 노래가 여러 번 끊겼는데, 나중에는 노젓는 시늉까지 하며 상체를 앞뒤로 흔들며 풍부한 성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제보자료 : II 3-2, II 6-2, V 5-1.

[제보자7]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1069번지.
양정옥, 여·60.



젊어서는 포항·양포·정자포·구룡포 등에 물질을 다녀왔다고 했다. 물질에 대해 묻는대로 서슴없이 답변해 주었으나, 정작 노래를 불러 주도록 청했을 땐 부끄러움 때문에 선뜻 응해 주지 않았다. 이호연·모창열 두 분이 어느 정도 노래하자, 분위기에 젖어서인지 뒤이어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했다. 앞 치아가 한 개 빠진 상태였으나, 발음은 그런 대로 정확한 편이었다. 4남5녀를 두었다고 했다.

제보자료: Ⅱ2-2, Ⅱ6-3, V5-2.

[제보자8]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2리
홍성자, 여·66.



마을 사람들로 부터 소개받아 어렵게 만났으나, 조사에는 쉽게 응해 주지 않았다. 자식들이 노래하는 것을 알면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양하는 것을 애써 간청하여 <해녀노래>와 <맷돌노래>를 들었다. 젊었을 때에는 충청도와 일본 하시마에 물질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귀덕2리 이장님의 모친이다.

제보자료: Ⅱ4-2, Ⅱ6.

[제보자9]

홍성아(여·13)	한정희(여·12)
조해빈(여·12)	강경숙(여·11)
정재연(여·10)	조희자(여·10)
김양희(여·10)	홍지연(여·9)
정안수(남·9)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모두 귀덕1리에 살고 있는 귀덕국민학교 재학생들이다. 조사 첫날 바닷가에 서 만나, 동요조사를 위해 귀덕국민학교로 데리고 왔다. 시골 어린이들이라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었으나, 아이스크림을 사다 같이 먹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 곧 생기를 되찾아 동요 요청에 응해 주었다. 가장 언니격인 홍성아 양이 노래를 이끌어 갔다.

제보자료 : V1-1, V1-2, V2-1, V2-2, V3-1, V6.

사설표기는 될 수 있는 한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어 표기법에 준하였다. 어린이들이 부른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 표기법을 따랐다.

Ⅱ. 勞 動 謠

1. 방앗돌 굴리는 노래

- | | |
|----------|---------|
| A. 요들 | 궁글어가니 |
| B. 어영허야 | 성사뒤야 |
| A. 요들 | 궁글어간디에는 |
| B. 어허영 | 성사뒤야 |
| A. 진시왕도 | 이들궁글려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춘하추동 | 스시절에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밥을짓는 | 쌀을다끝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춘하추동에 | 밥을먹을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 A. 통일천하를 | 못 亨였네 |
| B. 에헤에 | 성사뒤야 |

A : (홍춘송, 남 · 67)

B : (고지영, 남 · 57, 고문호, 남 · 49)

2. 김매는 노래

2-1.

어긴녀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검질짓고	굴늦인밭되
꼭은세로	여이멍맨다
저기가는	총비발아기
요일호쌀	도웨여도라
[청취불능]	

(홍춘송, 남 · 67)

2-2.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나라
여긴녀랑	사데로구나
양석싸라	섬이나가게
총각차라	물에나들게
여긴녀랑	사데로구나
사데불령	요검질메게

(양정옥, 여 · 60)

3. 발 밟는 노래

3-1.

- A. 어허야들 요산중에 놀든 송애기들아 노픈데를 불러도라
B. 어러러들들 어러러
A. 어허어허 도랑하랴 산들산들 선들하니
B. 어러러어러러
A. 어디를 갓느냐보구나
B. 어러러들들
A. 어허여어허랴 어허랴 어러러들들
B. 어러러들들
A. 요산중에 놀든 송애기들아 노픈 동산만 불러그네 어허어랴
B. 어허랴

A : (홍춘송, 남 · 67)

B : (고지영, 남 · 57, 고문호, 남 · 49)

3-2.

어령떠령 어러러러러러 어러러
앞명에 들어사건 즈근즈근 불름시다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어령떠령 산이로다 물이로다 어령 어러러러러러 어러만
고구리랑 나전 마께만씩나게 하여줍서 어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모창열, 여 · 60)

4. 맏돌노래

4-1.

이여이여	이여도ᄃ랑
울멍가민	눔이나웃나
대로한질	놀레로예라
이여이여	이여도ᄃ랑

적은베에는	짐하영실언
추즈과탈	양새에드난
요내목숨	살아올근심
이여이여	이여도ᄃ랑

(홍춘송, 남·67)

4-2.

이여이여	이여도ᄃ라
독은울엉	날이나샌다
나사울엉	어느날새리
이여이여	이여도ᄃ라
소낭에벗름은	불미나혼다
오름에돌은	등을단듯살을메난다
이여이여	이여도ᄃ라

(홍성자, 여·66)

5. 방아노래

이연이연	이여도 ㅎ랑
드리손당	큰애기들
식쿨방에	새글러 간다
이연이연	이여도 ㅎ랑
너랑죽건	자동차뒤흔고
날랑죽건	운전수뒤흔라
이연이연	이여도 ㅎ랑

(홍춘송, 남·67)

6. 해녀노래

6-1.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우리베는	춤나무로
지은베라	잘도나간다
이여도사나	

요네차락	꺼꺼나진덜
부산항구	가시남이
없을말가	이여도사나
요네차락	부러나진들
목포항구	곶은남이
없으리야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濟州島部落誌(Ⅳ)

요목저목	울단목은
감아나들멍	지영가자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산아산아	수영산아
동서으로	질이나나라
전싱곳인	이내몸도
훈번활발	걸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지어라지어	아니나지영
몬가더라	이여싸나

(홍성자, 여·66)

6-2.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	이여도사나 이여싸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어기여차나	어기여
어기여로	어기여차나

베또롱알을	놈을준들
이내네사	놈줄소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나
젓알대로	젓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설룬어멍	무신날에
날낫던고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나	
젓일대로	젓어나보자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청청훈	하늘엔
준별도	많구요
이내야	가심속엔
수심도	많구나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어떤사름	팔제종앙
고대광실	노픈집에
앉아서	호강애기
흐는구나	우리어멍
무신날에	날낫던고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훈푼두푼	버실어논금전
정든님술깍에	다들어간다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싸	이여싸나

濟州島部落誌(Ⅳ)

청청호 하늘엔
준별도 많구나
요내야 가심엔
수심도 많구나
이여도사나

설문어멍 놓아두곡
정든남편 놓아두곡
젓먹는애기 떼어놓고
삼시끓엉 물질 흥영
훈푼두푼 모여논금전
정든님술깍에 다들어간다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이여싸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이여싸나
어기여차나

돈아돈아 말몰른돈아
돈이아니민 한강바당에오랑
이물질 흥영 훈푼두푼
버실멍도 사는고
이여싸나
젓일대로 젓어나보게

(모창열, 여·60)

6-3.

어기여	어기여
어기여라	방에로구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이여도사나	어기여차라
차라차라	차라베경
콩콩지영	지영가게
아니나지영	못가더냐
요만지고	못갈내가
아니로구나	이여도사나
차라차라	콩콩지멍
지고가자	지고가자
아니지영	못가더라
어기여차	차라차라
차라베경	콩콩지멍
지고가자	지고나가자

강원도	금강산
금인줄	알았더니
여곳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는다
이여도사나	차라차
차라베경	젓고가자

요나이에	요네차락
남줄내가	아니로구나
콩콩지멍	먼딴사람

濟州島部落誌(Ⅳ)

보기 좋게	젓고가자
이여도사나	차라차라
차라베경	차고가자
저바당에	저물속은
지품야품	알앗겟지
훈집살앙	간장통물랑
나의간장	다태우네
어기여차	차라차
차라베겨	콩콩지멍
지고나가자	

앞이앗인	고사공아
뒤에앗인	이사공아
요만지고	내못갈리
아니로구나	
요만지고	못가더냐
이여도싸	이여도싸
콩콩지멍	지고가자
아니지영	못갈소냐

우리야	임으은
어딜가고	[청취불능]
올줄을	영모르네
어기여차나	차라차라
차라베경	콩콩지멍
지고가자	
아니지영	못가더냐

(양정옥, 여 · 60)

7. 집터 다지는 노래(원달구 소리)

어영허야	영허로다
이 집을지어	십년이민
아들을나면은	효조를낭고
딸은나면은	열녀를난다
어영허야	성사뒤야
개는나면은	황구를낭고
소는나면	황우를난다
얼렷렷	성사뒤야
이 집을지어서	누구를줄까
억대조손을	물려나주지
얼렷렷	성사뒤야

(홍춘송, 남·67)

Ⅲ. 儀 式 謠

1. 행상노래

1-1.

- | | | |
|----|--------|--------|
| A. | 어어어허어어 | 어어어허어어 |
| | 어기여릉창에 | 어화로다 |
| B. | 어와릉창에 | 어화로다 |
| A. | 산천초목은 | 끓어지고 |
| B. | 어와릉창에 | 어화로다 |
| A. | 인간청춘은 | 늪어지누나 |
| B. | 어와릉창에 | 어화로다 |

濟州島部落誌(Ⅳ)

- A. 북망산천이 얼마나 좋길레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부모동생을 이뵈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갈적올적엔 , 정들여놓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이뵈이두글자 누가지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정거장마다가 한강수뉘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이팔청춘 소년들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백발보고 웃지말어라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우리도 늙어서 백발이뉘면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요모냥요꼴로 늙어지누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멍사십리 해당화는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꽃이나진다고 서뤄말고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멍년춘삼월 다시오면은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꽃도나보고 임도보네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 A.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어서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 A. 정거장마다가 한강수뉘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은하착교가 다무너졌으니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건너나갈길이 막연호도다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술담배먹을적엔 친구도많전만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공동묘지갈적엔 나혼자로구나
 B. 어와룽창에 어화로다

A : (고지영, 남 · 57)

B : (김중화, 남 · 49, 고문호, 남 · 49)

1-2.

[거리 안에서]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케니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나
 에야야 야노야 이나나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저성질이 멀다흔들 창문바피보다 더떨소나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맹사십리 해당화야 부러진다고 서러워마라
 에야야 야노야 이나노 난시노 난시나 니나노 난시노 부리로다

[거리 밖에서]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산저산이 양산간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울고가는것은 저기로다

濟州島部落誌(Ⅳ)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케니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어서어서	시간바빠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웃벗님네	웨송호오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어린처자	버려두고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산에올라서	옥을케니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름이좋아서	양산이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맹사십리	해당화야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부러진다고	서러워마라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인자가면	언제오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오만날조를	두고가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인자가면은	언제오나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맹년오름엔	[청취불능]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가자가자	어서가자
어허룽창에	어화로다

(이호연, 여·60)

2. 달구노래

- | | |
|-----------|-------|
| A. 에에에 달구 | |
| 에에에 달구 | |
| 에에에 달구 | |
| 삼식 번소리채 | 들고나놀자 |
| B. 에에에 | 달구 |
| A. 산도만지 | 물도만지 |
| B. 에에에 | 달구 |
| A. 청룡뱀호를 | 들어다보니 |
| B. 에에에 | 달구 |
| A. 청산으로 | 안장하고 |
| B. 에에에 | 달구 |
| A. 대혜로 | 국세 잡아 |
| B. 에에에 | 달구 |
| A. 요집터가 | 생겼구나 |
| B. 에에에 | 달구 |
| A. 온천하 | 부귀영화 |
| B. 에에에 | 달구 |
| A. 여기가 | 다들었구나 |
| B. 에에에 | 달구 |
| A. 장항도다 | 장항도다 |
| B. 에에에 | 달구 |
| A. 천하만국 | 제일이라 |
| B. 에에에 | 달구 |
| A. 다돌ㄹ치 | 모아진접군 |
| B. 에에에 | 달구 |
| A. 칠성ㄹ치 | 벌어지명 |
| B. 에에에 | 달구 |

濟州島部落誌(Ⅳ)

A. 죽진달구	전체제로
B. 에에에	달구
A. 앓음달구로	들어간다
B. 에에에	달구
A. 누움달구로	들어간다
B. 에에에	달구
A. 거울달구로	들어간다
B. 에에에	달구
A. 칠성ㄹ치	벌어진접군
B. 에에에	달구
A. 다물ㄹ치	모여진접군
B. 에에에	달구
A. 접군님네	모여듭서
B. 에에에	달구
A. 은이잇어	은을줄까
B. 에에에	달구
A. 금이잇어	금을줄까
B. 에에에	달구
A. 금생여수	아니여든
B. 에에에	달구
A. 금이어디	잇사오며
B. 에에에	달구
A. 옥출곤강	아니여든
B. 에에에	달구
A. 옥이어디	잇으리까
B. 에에에	달구
A. 금과옥은	천물이라
B. 에에에	달구
A. 어쩔수가	없읍니다
B. 에에에	달구

A : (김중화, 남·49)

B : (고지영, 남·57, 고문호, 남·49)

IV. 타 령 類

1.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좋고 내가머리로 갈까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머리로 갈까나

한로산허리엔 시러미본숭만숭
서귀포해녀는 바다에 든숭만숭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돌도 붉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돌도 좋고 내가머리로 갈까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돌도 붉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고지영, 남·57)

2. 서우젯 소리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뗏다뗏다 사랑공판에 돌이뗏다

濟州島部落誌(Ⅳ)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당겟구나	모겟구나
이내심중에	다모겟구나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어기여차	두기여차
사랑노래를	불러볼까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놀당갑서	자당갑서
저돌이지도록	놀당갑서
아하아하요	에헤에헤요

(이호연, 여·60)

3. 각설이 타령

얼씨구씨구	잘훈다
품바품바	잘훈다
훈글제만	틀려도
문세쪽이	틀린다
얼씨구씨구	잘훈다
품바품바	잘훈다

작년에왔던	각설이가
죽지도않고	또왔네
웨발은돌은	돌축이
두발은돌은	깜마귀
쇠발은돌은	분무기
니발은돌은	당나귀
음음	잘훈다
품바품바	잘훈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얼씨구씨구 잘훈다
 얼씨구씨구 잘훈다

훈놈은간디 웨입질
 두놈은간디 장구판
 식놈은간디 화툫장
 뇌놈은간디 볼기장
 다섯놈간디 웅기장
 음음 잘훈다
 품바품바 잘훈다

무도세기 조천장
 [청취불능] 성원장
 갓다라와다라 애월장
 구경좋다 한림장
 얼씨구씨구 잘훈다
 [청취불능]

(이호연, 여·60)

4. 신세타령

숫한몸에 빙들어놓고
 간장만타는 내로구나
 우왕웅담으로 집을짓고
 청심환으로 낭불을떼어
 녹용으로다 구들을지퍼
 삼신산불로초에 미음을끓여서
 먹을지라도 이나이에
 낫기는 만무로다

(이호연, 여·60)

V. 童 謠

1. 줄넘기할 때

1-1.

꼬마야꼬마야	뒤를돌아라
꼬마야꼬마야	만세를불러라
꼬마야꼬마야	땅을짚어라
꼬마야꼬마야	잘가거라

(홍성아 외 8명)

1-2.

똑똑
누구십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신발벗고 들어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홍성아 외 8명)

2. 손놀이할 때

2-1.

비네비네 빈데뽕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우리 우리는
주먹 뽕
가위 뽕
바닥 뽕
도리도리 징경이세여

(홍성아 외 8명)

2-2.

빵먹고빵먹고 빵빵먹고먹고
너먹고나먹고 요리주고저리주고
맛있게도냔냔 맛있게도냔냔
우리모두앉아서 가위바위보

(홍성아 외 8명)

3. 어회요

3-1.

원숭이똥구망은 빨개
빨간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건 비행기

濟州島部落誌(Ⅳ)

비행기는	높다
높은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것은	바다
바다는	짜다
짠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건	광목
광목은	질기다
질긴것은	소가죽말가죽

(홍성아 외 8명)

3-2.

까마권	까옥
생인	쪼쪼
평은	줄락
흰둥	불락
막개	춤막
고도리	뚜옥

(이호연, 여·60)

4. 약올릴 때

둘래떡이	안바찌잇나
오사까전차가	앞뒤가잇나
여죽강알에	불알이가잇나
중놈대갈빡에	상투가잇나

(이호연, 여·60)

5. 자장가

5-1.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아기	돈밥먹꼭돈 줌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아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저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눔의애기	고치먹엉
우는소리	자랑자랑
웁이자랑	잘도잔다
잘먹꼭	웁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어진	할망손지
자랑헛저	웁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아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저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아기자랑
우리숫눔자랑	어진이자랑
순뚝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아기자랑

(모창열, 여·60)

5-2.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아기	재와줍서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꺼당	지픈지픈
한강물에	더리첫닥
내첫닥	헝리여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착훈	할망손지
돈밥먹곡	돈줍을재와줍서
어질고착훈	할망손지
어서누영	줍을자라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꺼다근	뒷बाट더레내껴불져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자는건	줍소리
노는건	눔소리여
어서어서	누영자라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착훈	어진할망손지
자는소리	노는소리나는구나
왕이 자랑	왕이 자랑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아니	재와주당
발모개기	손모개기
무꺼당	지픈지픈
한강바당에강	들이챇닥
내챇닥	헉리여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어서누엥	좁을자라
무사무사	아니잔
영나를	즈들람디
어서눅곡	좁을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양정옥, 여·60)

6. 기타

닭장속에는	윤시내
벗어나고파	벗어나고파
공부시간엔	심형태
잘모르겠는데요	
점심시간엔	김병조
술가락놔라	
체육시간엔	김병조
나가놀아라	

(홍성아 외 8명)

說 話

指導教授：金 相 助
班 員：金 恩 希 (3)
姜 聖 大 (3)
愼 希 範 (2)
高 大 勝 (1)
文 惠 暎 (1)
金 京 姬 (1)

뱀굴이야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아침식사를 막 끝내고 있었는데, 얘기를 청하자 쉽게 응락했다.

제보자는 오랜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이어서 사투리를 잘 쓰지 않았으며,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흥미를 가미하는 감이 없지 않았다. *

지금 마트민 도지사(道知事)와 마치 제주도로 영천 이목사(永川 李牧使)가 와서 잇엇는디. 이 제주도는 남군(南濟州郡) 하고 북군(北濟州郡)이 차이가 잇어요.

그러면 남군, 저(조사자를 지칭함) 젊은 분네 모슬포로 저쪽데레 가며는 중문(中文), 서귀(西歸), 저 남원(南元) 가 가민 거기 토산(兎山)이 아주 심이 쁘디.

그러면, 이게 우리도 낳기 전인 일인가봐요. 그 때 아무래도 영천 이목사 때라 이러니, 원간 제주도에서는 토산 심(힘)이 씨여 가지고 억제허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면 어떻 했는고 하니 그때는 고려 이후니까니 이씨 조선 촌지 전인지, 요거 이씨 조선 초긴지도 모르쥬.

물론 아무 때도 이 장사가 잇엇지마는 그때는 아마 고려장으로 되엇던가봐요. 그러며는 늙어가민 혼 칠 팔십 되영 늙어가민 만물재단(萬物財壇)을 잘 출려 놓고 좋은 옷을 맨들어 놔 입지고 그 집녕굴(金寧窟)에 가서 앓져 낫대요. 앓지며는 이진 어떻게 앓지는고 하니, [잘 잡수시고 신선뵈서 하늘 위로 올라가 주십서]. 그거 어둔 때지, 어둔 때. 지금 사름덜은 그래, [아, 잘 잡수시고 신선뵈어 올라가 주십서] 하여서 조녀(子女) 분네가 강(가서) 이제 하직허고 집에 왕 그자 신선 뵈영 올라 갈 때만 지드리는다. 이제 뒷날 가서 보면 웃어져. [아, 이거 신선뵈언 올라 갓구나] 늙은이가.

영천 이목스가, 그러니 그렇게 뵈어 가민 그 지혜가 높고 그렇게 속질 안허 거든. [이거 안뵈었다]고. 그제 신선뵈영 가는 게 아니고 그디(거기에) 큰 구렁이 배염이 잇는디, 앓지민 그 사름을 오꼳(그만) 들러 먹고, 들러 먹고 해서 크기가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잇는 거거든요.

아, 이놈 이방안티 말해 가지고, 「장점을 준비허라」그고.이젠 거기 가서 시기는대로 나오니 뭐 그 까짓거 ㄹ려 데끼니 문제 없거든. ㄹ려 데껴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웃거든.

아니, 신선뵈영 어딜 올라 가겟어.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었는다. 그 지금 말한 토산 귀신들이 말허기를,

“오늘 배를 띄여서 육지에 가서 부뜨민(도착하면) 항고, 그렇지 안허민 당신 목숨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것도 살기 위해서 그냥 배 타고 육지 간 떨어지자 말자 아주 막 대풍이 불어 가지고 죽을 뻔 해났다고.

(조용봉, 男)

남편 원수 갚은 이야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제보자는 마루에서 동네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총기(聰氣)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으나 미리 조사되어진 얘기들을 들려 주었더니 몇 가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들려 주었다.

제보자는 나이가 들어 매우 거동이 불편했으며 얘기하는데 숨이 가쁘고 기억력이 없어 보였다. *

남저들 둘이 친구라. 여제는 이제 그 친구가 그 여줄 막음에 드니,
“우리 산에 가그네(가서) 사농허레 가자.”

허연, 사농허레 올라 갔저.

[조사자 : 아, 그 남자 친구들]

음, 그 남저 친구들 둘이.

올라 간디, 그 남저영 ㄹ때 간디, 아니 막 어두워 가나네, 그 친구만 오라서
(왔어). 이녀 집이 남편은 아니 오고. 게난,

“어떠난 이제 아니 오랏젠?”

“어디사 간디 ㄴ시 ㄹ때 가겐 불르당(부르다가) 버천(지쳐서) 그냥 오라서.”
영허지. 영허난(이러니까) 그 여제광, 안 오난 이제 ㄹ때 산단 말여.

[조사자, 청중 : 아, 친구 각시광]

친구 어시데껴 분거여.

경헨 살단 그냥 애기덜 낳고 살아서. 홀 수 엇이. 여제란게 홀 수 엇주게.

[조사자 : 예]

살단 그 여제가 비가 막 크게 오나네(오니까), 각시 동무릎 배여네, 이젠 ㄴ
(風) 잡아 드렌.

옛날은 ㄴ 이서낫지이. ㄴ 몰라. 이 청년들은.

영 동무릎에 업더져네, ㄴ 잡아 가난게, 속숨허주마는. 게메이, 살인(殺人)
은 물어지지 않는다는 거라.

[청중 : 혼자 ㄹ릅서게.]

경허난 마당에 막 비 오멍 중트지이? 부글락부글락허게 중터가나네, [히히
히] 웃으멍,

“똑허게 저 비 중트는 거 저 사름 본 남편네 똑 피 부끄는 것 답다.” [웃
음]

“아휴, 게난 어디서 경(그렇게) 피 부끄멍 죽읍데강? 아고, 나 그 놈의 죽석
원수보감(怨讎報?) 못허영 허는디, 강(가서) 그 자릴 강 ㄹ르쳐 드렌?”

죽어난 자릴 가 보난 뼈(骨)만 소드락해서. 몇 년 뒀난 게.

게난 춤 그 여자가 [그 놈의 죽식 어느 제랑 나 원수보감허렌] 했고렌. 그냥 허멍(하면서) 문딱(모두) 손톱, 발톱 다 치매통(치맛자락)에 다 주서 담안(주워 담아서), 이젠 바로 포청에 들어 가서.

아맹아맹 현 남저가 아무 적에 아무 적에 이제 [사냥 ㄹ때 가젠 허영 간 집 의서 왕 ㄹ찌 살멍(살면서), 이젠 죽식 나멍 살앗고렌.]

그 때 그 사람은 그냥 포청에 간 내어 놓지 안해서. 강간죄, 살인죄허고 두 가지라부난.

경 해낫주 옛날은. 경헌디 이 춤 살인 묻어지는 딴 웃어.

(김복, 女)

장사 고 삭배

고 석배엔 현 사람이 힘이 어떻게 씨엿는지 이 사름허고 당헐 수 웃이 썬 사름이여. 장가는 어딜 들었냐며는 저 판포(板浦) 장갈 들었는디, 처가침의 세 벨 안갈랴고 허니까 각시가 말허기를,

“아, 여보시오. 해가 넘어 가는디 세벨 혼 번 가봐야 헐 거 아니요.”

“세배 갖다 나 올라오젠 허믈 배가 고파서 걸음을 못 걷는디, 가민 밥이라도 혼 끼니 줘야지 아 배고파 걸음을 못 걷는디 뭐허레 그디(거기에) 가냐.”고.

“안 간다.”고.

경허니까 그 고 삭배 부인이 판풀(板浦에) 내려 왓던 모양이여. 아, 이젠, “어머니, 사위 오라꺼(왔거든) 밥 혼 끼니 닥암지기(그렇듯하게) 해 줘서. 배 고파 못 오라가켄 다신 세벨 안 오켄 허니 이거 어떻 그런 법이 잇읍니까?”

“요놈의 죽식 배가 얼마나 큰 거랑 영 햄신고?”

아, 이젠

“잘 내려 보내”렌.

내려 왓어. 내려 왓는데, 장모가 밥을 헤 큰 낭푼이(양푼) 호나 허니까 미 끈(모조리) 다 들러 먹고,

큰 처남이 이걸 얼뭍여 불라고 말여.

“매부 우리 집의 줌 갑시다.”

“아, 경해주”

맛 존 거 주민 가켄. 가니깐 도야지(돼지) 고기 술만 썰어 논 거 말여, 큰 그

릇 하나 주니깐 다 먹거든.

셋 처남네 집 가니까 토종 막걸리 큰 그릇 하나 주니깐 통채 들러 먹어.

젤 작은 처남신디 가니까 구제기(소라), 술마완 그냥 오라 논 거 말야. 그 거 그냥 죄다 다 먹었어. 얼마나 먹은 거여. 밥, 도야지 고기, 술, 구제기 막 먹어 제치니깐 혼 번, 빙 자당 가켄. 그러게 작은 처남이,

“저 놈의 존석 오늘 돼진다(죽는다).”

고 말여. 그대로 먹어 노니깐. 자, 도야지 고기, 막걸리, 그 구제기 오라 논 거 췌다 오란 먹어 노니깐 오장이 준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인제 누니(누우니) 줍이 안 오네.

“처남, 나 잘 먹어서. 갈로고”

장모안티 와서 인제,

“잘 먹고 갑니다.” 허니까,

“그래. 밤 길 잘 다녕 올라 갓당 또다시 와 이?”

“예.”

가다 보니깐 뭐 처가칩의서 가정 가렌 주니까 등어리에 짹어지고 올라 가는 디 송년(흥년)들어 노니깐 그 도로가 좁은데 사람 네 사람이 있다가 고 삭배 줄 물랐지.

“거, 정(지고) 가는 거 뭐여?”

“우리 장모가 주니깐 나 집의 가서 풀어 보기 전엔 모르지. 뭇싸(무엇이) 들었는지.”

“이 존석 봐. 거 우리 줘.”

“주다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너의 줘.”

영허니까,

네 놈이 덤벼들젠 허난 짐 진냥 뒀에 보니깐 뭇가시가 잇거든. 심엉(잡고서) 확 좁아 땡견 양착(양쪽)으로 허연 땡비는 걸 패부린 거라. 거 니(네) 사름 뭇가실 혼 번 홀터 불민 뭐 어디 [청취불능] 다 도망쳐 부러서. 내중(나중에) 아니까(알아보니까) 고 삭배라서.

“저 놈의 새끼 큰 일 날 뻔했다.”고.

“우리 건드리지 안허길 다행이지 건드려 봐시민 그 뭇가실 내들러 봐시민 우린 죽었다.”

이런디 그 해 8월 초열흘 되니깐 장인이 사위 빌영 출(뜰)이나 혼 번 베불
까,

“미안허주마는 출 하루만 베 줘.”

“경협주(그렇게 하지요), 뭐 헐 때랑 허래 읍서 베어냅주.”

새로 이젠 밥허영 잔뜩 시건 올라간 보니깐 비여(베어) 젖힌 거 보니 저푸게
(무섭게) 비여 낫단 말여. 가시고 출이고 혼것드로(모조리) 막 비여 잣혀 부럿
어.

“사위, 밥 먹영 비게.”

“오십테강(오셨읍니까).”

밥을 좀 먹고,

“그 가시 ㄹ튼 걸랑 비지 말아 줘.”

“어느 저래 가시 골리꼭 경(그렇게) 빡니깡? 혼것드로 비영 무꿀 때 골라그
네 무췌 잡서.”

아니 이거 비여 논 걸 보니까 도저히 무꿀 수가 없어. 사위ㄹ라 이제 무꺼
드렌(달라고) 허난 가시고 뭐고 죄다 무꺼 뵈어.

“이거 어떻 행 맥이느니?”

“집이 강 눌엇다그네 못 빠진 새자길 탁탁 찍영 새 앞드레 낱 내불민 가신
안 먹고 출만 다 먹읍네다.”(허허)

그렇게 홀륭한 사름이 잇어 낫다고 허뵈.

(홍춘송, 男)

월계 진좌수

어떤 양반을 만나 가지고 인살 드리니깐,

“어허, 나 짚은 모르지만 이 부락에 월계 진좌수라는 사름이 살았다.”고.

월계 진좌수 돼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잇냐며는 저 섯(西)동네 살고 이 동 동
네 지금 서당에 오쟁(허고자) 흥며는, 아척(아침)에 오다 보며는 예쁜 계집아이
가 구슬을 주면서,

“이걸 입에 물엇당 바까(빨아) 달라.”고.

“입에 물엇당 자기 달라면 주라.”고.

그거 허다 보며는 시간이 늦이니깐 선생이 말허기를,

“너는 뭐 험다고 그렇게 매일 늦느냐?”고 말야.

“늦는 원인을 말해 보라.”

“선생님, 그게 아니고 오다가 보며는 저 냇가에 강 어떤 제집아이가 하, 구슬을 주면서 ‘입 아(입을 벌린 모양) 허랭. 나의 입에 물엇당 자기 드랭(달라)ㅎ고 거 몇 차례 허다가 허는 브름에 늦었습니다.’”고.

“음. 오늘은 그랬다고. 내일은 오랑 그러거든 그 구슬을 숨켜 불라.”고.

숨켜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름을 보민 상통천문하달지리(上通天文 下達地理) 만물 박사가 뉘 가지고 홀룽헌 사름이 된다.”

하는 거여.

“아, 그럼니까?”

뒷날은 이제, 오다 보니 그 놈의 제집아이가 잇어서 아, 거 구슬을 주니깐 숨켜 부렸어요. 숨켜 부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름을 보렌 했는디, 하늘 보고 땅 볼 어간(사이)이 없고 사름이 나타났단 말여. 경허니깐 사름에 대해선 박사가 뉘어. 의사지. 참 홀룽진 의산디. 누가 무슨 병 걸렸다면 와 가지고.

“아, 무슨 병을 걸렸습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죽어 가니깐 그 월계 진좌수신디 물레(물으러) 간거여. 가는디, 아 거 임무천지(林無天地) 사름이 잇는디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겁탈 당헌거라말여. 낭 밧디서(밭에서). 이제 겁탈 당해서 인제 허니깐, 기분 나쁘지마는 이제 그 월계 진좌수한테 가서,

“사실 이만서만해서 왔는데, 그 무슨 병이고 무슨 약을 허면 좋겟습니까?” 이러니깐,

“오다가 어떤 일을 당했지?”

“네, 당했습니다.”

“가다가 치마나 벗엉 눈이나 덮어 뒀 가. 남편 대리로 그 사름 죽었다.”고 말여.

그렇게 명의(名醫)라 말여. 혼 번 탁 허민, 견디(그뻘메) 이 사름이 그렇게 홀룽헐던 모양이여. 장기를 두는데, 월계 진좌수가. 장기를 똑딱똑딱 두는데 인제 장기 두젠 벌견(벌여) 장기나 다 끝나민 무슨 애길 들어 불라고 혼 사름이 ㅁ만이 앓았단 말여. 바람이 오늘 ㅁ티 쎄디 바람결에다 어떤 나무 이파리가 딱

장기관에 왕 떨어지거든. 떨어진 좃영 영 배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앓았던 말야.

“아, 어떻게서 오셨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 선생님 약 지시는데.”

“이 나무 이파리 강 달려서 맥여.”

아, 나무 이파리 달렁 맥이니가 좋아 분거여, 그렇게 홀룽헌 사름이었던 모양이여.

전디 사름에게는 그렇게 홀룽했는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는 상통천문하 달지리(上通天文 下達地理)를 다 허게 뉘전디 사름만 봐 가지고 사름을 그렇게 홀룽히 했다고.

(홍춘송, 男)

장사이야기

제주도에서 쥔 힘썌 사름이 잇었어요. 힘이 제일 장사가 잇었는디, 이 말을 들어 봤는지 모르겄어요. 이것도 전설인디.

부썌(夫氏)데, 부 대각(夫大角)이라고. 아덜 성제를 데리고, 이 사름이 대포(大浦) 사름이었던 모양이여. 저 중문면(中文面) 대포리(大浦里) 사름인디, 웃한질로 제주시엘 가는디 가다 보니깐 깡룩이 들이 이제 쥔렐(싸움을) 부뜨고 잇어.

[조사자 : 깡룩 마썌 ?]

깡룩이, 사슴이지.

싸움을 허고 잇으니깐, 성제지. 아버지는 뒤에서 뭐 벤손가 뭐 보는디, “아부지, 아부지. 빨리 오십서. 빨리.”

“왜 그러냐?”

“이 깡룩 두 마리가 싸움을 부뎡는디 아, 이거 어쩌면 좋겄어요.”

“야, 이 머저리 같은 놈덜아, 딱딱 조저라. 대팍 조저라.”

뿔이 부서지면 아무라도 죽을 거 아냐 말여. 싸움을 허는 걸 딱 붙잡안 들이 딱 붙잡은 뿐이지 탁탁 마주치진 못했던 거여. 마주치질 못해 가지고 결국은 부 대각(夫大角)씨가 가 가지고 탁탁 부닥치니깐 뿔 다 부서전.

[조사자 : 부 대각허민 저 아버지 ?]

濟州島部落誌(Ⅳ)

아버지지. 그러니깐 힘이 장사지. 성제가 부떠 가지고 싸움허는 걸 딱 붙잡은 것도 힘이 장산다.

“마주쳐라. 마주쳐라.”

마주치질 못허고 강 붙잡은만 현디, 아버진 가 가지고 탁탁 조지니깐 뿔이 다 부서져 가지고 뚝 놔를 다 잡았대요. (홍춘송, 男)

허 웅 아 기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아 나섰으나 약속된 제보자를 만나지 못해, 돌아오는 길에 마당에서 보리 이삭을 말리고 있는 우연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이 얘기를 청하자 처음에는 잘 모른다며 우리들의 제의를 일축했으나 몇 번 부탁하며 얘기를 청하자 이야기할 뜻을 비치고는 어느 정도 상세히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여자가 친정칩의 살멍 아긴 두 아거나 나쪽 살아나신디. 에, 집이 원간 큰 집이라노난 구들이 아홉 개, 이제 마당. 아(앞에 말한 것이 잘못되어 다시 말하려 함), 구들이 열 개, 마당이 아홉 개. 경허난 아홉 마당 썰고 열 두 구들 다꼬고 허여두고 이제 뒷동산에 건블리레(바람 쏘이러) 간 보난 허웅아기 잡으레 오는 채시(差使)가 탁 뒤따르멍 허웅아긴 중은(줄은) 모르고,

“어드레 가문 허웅아기네 집곤?”

허난 허웅아긴 이제,

“어평헌 일로 들엄수젠?”

들으난, 이젠,

“허웅아기 잡으레 오는 채시노렌.”

이젠 저 망(갓양태)만 부튼 갓 허여네, 이제 귀에 걸고 짓(깃)만 부튼 도폭 허여네 이젠 야개기(목)에 걸고 목만 부튼 질목(양말) 싣꼬 허연 이젠 오멍,

“허웅아기네 집 어느 것곤?” 허난.

“요 재 녀멍 저 재우다. 저 재 녀멍 요 재우다.”

허연, 이제 막 먼 딜로 돌아갈 걸로 허여된 지(자기)는 툭탁 튀어오란,

“아이고, 아버님아. 아고 아버님아. 날 이젠 잡으레 오는 채시 뒷동산에 득

달(도달)했수다. 아이고, 날랑 이제랑 쇠(牛)로 대명(代命)시켜 줘서. 몰(馬)로 대명시켜줘서.”

“쇠도 나두민 밧갈아진다. 몰도 나두민 밧불려진다. 는(너는) 닌(네) 명에 가라.”

경허난, 이제 해여 볼 말이 엇언(없었다). 경허난 이제 어머님사는 방에 놀러 드런,

“아이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날 잡으레 오는 채신 뒷동산에 득달했수다. 아이고, 날랑 쇠로 대명시켜줘서. 몰로 대명시켜줘서.” 허난,

“쇠도 나두민 밧갈아진다. 무신 몰도 나두민 밧불려진다.”

[조사자 : 어명도 경ㄹ라마썸 ?]

어명도 경ㄹ라.

“늬은 종으로 대명시켜줘서.” 허난,

“늬은 종도 나두민 불술마진다. 는 닌 명에 가라.”

허난, 이제 채시 딱 경 햄시난, 이제 득달허연 클렌(가자고) 허난, 이제 저승엘 갖거든.

저승을 가난 이 사름은 이제 밤인 갓맹지 닛 동을 차젠 허고, 낮인 물맹지 닛 동을 차렌. 저승법으로 말허난 그걸 차멍, 얼굴이 잘도 고와나신고라, 어영귀 ㄹ튼 양지(얼굴)에 추승같은 눈물이 두룩두룩 털어져가난 이제 저 시상에 사름은,

“아, 무슨 따문에 이제 경 눈물이 두룩두룩 남시닌?” 허난,

“아, 열 다섯 난 낭군도 싯고(있고), 혼 술 난 아기에 두 술 난 업개에 뇌똥 온 사름이 아니 울 수가 싯수젠(있겠읍니까). 이제 그 아기 생각허는 것이 이제 막 울어전 살지 못허켄.” 허난, 이제 벳(햇볕) 과랑과랑 나는 마당더레 춤(춤)을 탁 바끄면서(빨으면서),

“에, 그건(그렇다면) 이 춤 뽏기(잡기) 전에 이승을 강 그 아기덜 방(보고) 오렌.”

허난, 시젠 놀앙오란 그 아기덜 젧(젓) 뵈여 두고, 빨래 해줘두고 허연 간 이제 저승에 들어가난 [시간 전이 잘 오랏젠] 허연, 이제 저승에 간 딱로 거기서 자당(자다가) 따시 메틀에(며칠에) 혼 번 [이승 강 오렌] 허민 이승 오곡. 자꾸 해가난 이제 웨할망이 보난,

“아고, 야인(이 아이는) 어멍 엇인 아기엔 홀 수 엇덴. 므룩므룩 솔찌고 고왓젠.” 허난,

“우리 어멍 밤이민 오메.” 허난,

“아, 이제랑 어멍 오진 날ㄹ라(나에게) ㄹ라드렌(말해라).” ㄹ곡.

그 아기 이제 경정(이력저력) 해가난 호끔(조금) 오간(철이 들어) 이제 걸음발 허곡 말도 허난,

“어멍 오민 날ㄹ라 ㄹ라드렌. 니네 어멍 엇어부런 보난 이번엔 오믄 안 보내켜. 날ㄹ라 ㄹ르렌.”

허난, 이제 어멍 오나네,

“아고, 어머니. 어머니. 난 저 똥 므룩완 똥누레 가젠.”

허난, 어멍은 아이 강 소도리(고자질) 해불카부텐(할까봐서),

“아고, 똥 므룩거드네 정지(부엌)에 싸라.” 허난,

“정지에 싸른 똥내(똥냄새) 안 남네까. 밥허레 가문 똥내 남네다.”

“상방에 싸라.” 허믄

“상방에 앓앙 놀젠 허믄 똥내 안 남네까?”

“구들(방)에 싸라.” 해도,

“구들에 똥 자젠 허믄 똥내 안 남네까. 난 저 울래에 강 싸쿠덴.”

허난, 이제 어멍이 ㄹ르레 가카부텐 벌써 알아네. 춤술을 이제,

“니 홀목에 줄라 메곡, 나 홀목에 줄라 메그네 똥 뉘똥 오렌.”

허연, 경 보내노난 아인 오꼳 할망칩의 드라간 이제 정지에 간 춤술은 ㄹ랫 츄룩데레 오꼳 줄라 메두고 할망칩의 드라간(달려가서),

“우리 어멍 와서. 우리 어멍 와서.”

허난, 이제 할망 놀아오난(달려와서),

“아이고, 설룬 아기야. 이번이랑 쉼로 대명시겨 주마 가지 말라. 몰로 대명시겨주마 가지 말라.”

허여 가난, 이제 더디(늦게) 가 가난 저승에선 이제 채시가 또 돌레(데리러) 오랏거든. 돌레오난 이제 글렌(가자고) 허여네. 해가난 할망은 안 보내켄 해가난,

“아고, 허건(그렇다면) 신체랑 츄지(차지) 허렌, 날랑 혼 빠가켄.”

[조사자 : 예, 혼만 양?]

아, 경헨 글로부터(거기서부터) 사름은 혼 빠가는 법을 오꼴 내와난 혼 뺄 오
꼴 가부난 신첸 덜랑이 구들에 죽언 내부런. 허웅아기가 그쳐록(그처럼) 안해
시민 저승 왓닥갓닥 허컬. (김자생, 男)

호랑이 잡은 이야기

어린 아이가 신디이. 우리 두릴(어릴) 때 옛 말 들어난 말, 요새도 꼴암주마
는.

이제 호랭이가 마당에 오란 짝 무릎 꼴리고 었더진디이. 아인 그냥 호랭이
발로 그냥 모션 막 드러(계속해서) 울어도 늑시(끝내) 소릴 그치질 못허연. 아
이가.

[사탕 주마] 해도 소리 안 그차, [사과 주마] 해도 소리 안 그차.

허난, 이 그 감이 꽃감이 이시나네,

“마, 요 꽃감”

허난, 아기가 소리가 딱 그치난 이젠 그 놈의 호랭이는 이제 쇠막(외양간)에
간 뉘서. 쇠막에 누난 쇠도둑은 땡기단(다니다) 보난 어름썰어 보난 털이영 북
삭헌게 그냥 좋은 거라. [에, 요놈 이제랑 요 우이(위에) 었더진다.]고.

푹 었더지난 그냥 이놈의 꽃감 부떠다고 와들와들랑 들러퀴멍. 선비난에 짓
부리멍 가도 떨어지지 안허연. 떨어지민 죽을 걸로 아난 그자 딱 언주안앙 가
는디 큰 산중에 이제 큰 풍낭 소쿠리, 풍낭 '즈꿔디 간 영 부비어 가난 풍낭 확
안안 그 사름이 이젠 그 풍낭 소꿔더레(속으로) 기어 들어 부려서. 기어 들어부
난게, 그 호랑인 지네 집의 가난게 각시네영게,

“아, 당신 인물 내(사람냄새) 난다고. 인물 내 나니 이제 곧 어디 간 털어 부
런디.” 허난,

“요 아무 속에 풍낭 어염(옆)에 오란 털어 젓젠.”

허난, 이젠 그 숫(雄)호랭인 우으로(위로) 가네 딱 막아 앓고, 암호랭인 알로
(아래로) 그냥 톱으로 찢다(찢다). 싸가난 그냥 마주 앓이 난게(앓으니까) 불알
(낭심)은 다랑이 등겅주게. 호랭이가. [웃음]

허리띠로 불줄기 확 무껴서. 딱 졸라맨 이젠 죽건 죽으렌. 등기난 이젠,
“아이고, 꽃감 부뻗다.”고.

濟州島部落誌(Ⅳ)

막 외여가난(외치니깐) 이젠 각신(아내는) 그냥 특 나뉘 터전 돌아부련(달아나 버리다).

훈참 동기난 느랏이 죽어. 죽으난 이젠 호랑이가 죽으난 나오란 털어추안(떨어뜨려서). 에, 거 나라 임금인가에 상타더라 허여. 옛날도. [웃음].

(김복, 女)

딸은 출가의인

* 이 얘기가 있기 전 몇몇 다른 내용의 얘기를 했으나 내용이 확실하지 못 여 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의 얘기임을 미리 밝혀 둔다.*

경허난게 옛날도 딸은 출가의인(出稼外人)이라도 아방(친정아버지)도 ㄴ튼 날 훈 시에 죽고 씨(婢)아방도 훈 날 훈 시에 죽으난 개광(開墳)은 아시날(전날) 간 아매도 개광을 현 모양이라.

경헨 나두난 어느 동안 딸은 간 아방 물을 더 간 좋은 자리 봉간(찾아서) 개광을 허연 출흙 파다 두고 허연 막 다리고(다지고) 나두난 물 훈 허벅 전 가네 팡팡 비와 부러된 와 부러서. 비와 부러된 와부난, 행상(行喪)은 허영 간 보난 물이 둥둥 허엿주게.

경허난 아니 딸년은 그 씨아방 ㄴ튼 날에 ㄴ떠 묻게 뒀난 행상해 놓고 허연, 이제 [아방 눈디 오랑 보켄]. 돌려 오난 이젠 거기선 [개광허지 마랑 시렌]. 해된 돌려 오란 보난 이젠 물이 둥당했주게. 이젠,

“아휴, 우리 아방 무사(왜) 물통에 묻젠 햄시니. 물통에 묻젠 햄시니.”

막 둥글멍(뒹글며) 원망해가난 이제 그디(거기에) 산(墓)을 안 써서. 그 오라 방네가.

그디 안 쓰난.

[조사자 : 예, 친정아방 묻젠 현디 양?]

응. 친정아방 묻젠 허는디. 딸이 대왕(大雁)터에 간 물을 두어 허벅 저단 비와 부러주게.

“아, 우리 아방 물통에.”

누어 둥글멍 막 허여 가가난 이젠 다른 디레 메연 가부러주게. 메연 가부난 에, 그제 진작 그 시간에 그디 ㄴ저단 물 퍼두꼭허연 거기 묻으난, 딸은 잘뒀

곡 오라방은 망해불곡.

[조사자: 예, 저 시아방을].

시아방을 가져다 문어주게.

전디 거 옛날 풀도 이녀(자기)만 잘 뒀젠 허연 잘못이라.

[청중: 예, 몰상식한 년이여.]

이녀편이가 잘 뒀어사 싱싱허는디, 아방이랑 망허곡 이녀편이랑 잘 뒀곡.

(김복, 女)

도채비에 홀린 사람

도채비 말인디, 이것이 오래된 말이라.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다정한 친구들과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뉘 자고 있는데

“제십니까? 제십니까?” 허여.

“누구냐?” 허니까,

“나 이 동네 사는 누구누굽니다.”

“뉘 허래 왔느냐?” 허니까,

“누구네 집의 도야지를 잡아 가지고 뚝추렴을 하고 있으니 나와서 같이 추렴도 하고 술도 먹고 놀시다” 허니,

“안가켜” 허니까,

“잡시다. 잡시다.” 하도 권해서 나왔어.

얼마 가지 못해서 뚝 잡는 데가 있을 텐디. 시간상으로 오래여.

“몬왔수다.”

경허다 보니까 그사람 뒤를 쫓아가는 데, 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길도 어둡고 날은 캄캄하고 이상하게 여겨,

“나는 안간다.” 허니,

“몬 오랴수다.” 허며 유인하기 때문.

공포심이 있어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이상한 내창[정지천]이라.

“도채비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이상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뽕조리 동산(돌바위)에 무의식중에 툅 올랐거든. 사람이 오를 수 없는데 도채비가 수를 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채비는 12시 이후. 1시, 2시, 3시가 돼가지고 닭이 울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라. 시간이 몇 시인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 동안 걸어 왔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닭이나 울었으면.”

도채비가 하는 말이,

“닭이 울면 어찌?”

“사람이나 멍졌으면.”

“사람이 멍기면 어찌?”

“개 주꾸는 소리가 났으면.”

“개 주꾸는 소리가 나면 어찌?”하고 반박하다가. 나중에 닭이 울고 날이 새어서 정신을 차려서 잘 보니 뽕조리 동산에 앉아 있고, 몸은 가시자왈 돌 있는데 멍기다가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신도 없고, 옷도 일로절로 가시자왈에 걸려 찢어지고 없었거든,

집으로 왔는데 도채비에 흘러서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가 몇해 못살고 2, 3년 살다가 빠졌다.

도채비가 났다가 까진 장소에는 빗자락이나 개똥이 있다는 말이 있어, 별다른 말 아니여.

주) 정지천 : 귀덕과 금성을 경계하는 건조천
뽕조리 동산 : 귀덕과 금성사이 돌로된 언덕

효부 이야기

귀덕리 경주 이씨가 있는데, 한경면 판포리에 가면 진(秦)씨가 많이 살고 있어. 그 집의 딸이 경주 이씨 집에 시집을 왔어.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이야기라.

귀덕 시아버지가 돌아가서 좋은 산자리를 골라서 안장을 하려고 임시 토룡을 허고 있었어. 정시(地官)을 초청해서 산을 보러 다니던 중 판포리 친정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죽기 전에 와서 놀다가라 하여 판포리에 갔거든.

“아버지 그동안 병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귀덕리에 시집가서 자주 아

버지 병환을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말씀 하시기를,

“딸랑 저래 물러가고, 아들만 이 자리에 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니, 딸은 “예 경허우깁.” 하며 물러나면서 생각하기를 “딸도 자식인데 아들만 불러서 비밀 이야기를 하려놓고 못쓰겠다 어디가서 아버지 허는 말을 꼭 들어야 하겠다.” 하고 창문등 밖에서 부자간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어. 아버지가 허는 말이,

“귀덕2리 소못연대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 가서 묻어 달라. 만약에 거기 묻지 못하면 판포리 즈꿏디(근처에) 묻어 달라.” 애원하고 며칠후 죽었어.

딸은 시아버지가 묻지 못하여 있고,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니 또 소못연대에 묻어 달라고 했으니, 딸이 조금 나쁜 먹음을 먹은거지. 그밤에 소못연대에 와서 친정아버지 묻을 곳을 조사해 보니 썩 좋거든. 좋으니까, 딸이 마음을 달리 먹고 친정아버지를 묻지 말고 시아버지를 묻겠다 마음을 가졌어.

옛날에는 안장하기 전날 개광(開廣)을 파고 즈꿏디 천막을 치고 감시를 허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라. 혼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천막속에 봉덕불을 키고 개광은 하고 지키고 있는데, 개광을 허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뉘자고 있는거라. 밤 열두시쯤 된 때 딸이 물허벅을 이고 와서 오백메다 거리에 있는 물을 밤새껏 개광 자리에 질어다 갖다 부어서 개광자리에는 물이 가득하게 고였어. 내일이렌 현 날은 판포에서 행상을 메고 와서 원자리에 놓고 보니 개광 자리에 물이 고여 있어.

“오라버님, 오라버님 아무리 혼들 아버지를 물 고인 이러한 땅에 묻겠습니까?”

당추 안된다고 응상조압하는 거라.

“아무렴은 물통에다 아버지를 묻겠습니까?”

상주는 아버지 유언에 이 자리가 좋다고 했는디 이상도 허다. 허고, 할 수 없이 상주가,

“행상을 판포리에 쓰시오.” 하니

딸은 행상을 판포리에 묻은 즉시 시아버지를 그날에 귀덕에 묻었다.

그후 귀덕과 판포는 원수가 되고 이녁아방 물을 걸 시아방을 묻은 이집에서는 잘 되어서 다 발복(發福)하고 과거급제한 후, 귀덕 이씨집은 판포에 가서

사정하고 조상이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거룩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귀덕 이 씨집이나 판포 진씨집에서도 전설로 삼아 내려오며 말하고 있다.

(이춘식, 男 · 56)

문고리 귀신 이보

옛날 옛적에 상당히 부량한 난봉꾼이 있어서 일도 하지 않고 돌아만 다녀. 옛날 궁궐에서 방을 하나 붙였는데 어느 마을에 원님을 가문 무조건 시켜 준다고 허나 거기 갈 사람이 없어. 거기 간 날 저녁에 사람이 죽는다 말이며. 아무라도 지원해서 가면 시켜준다 허니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가본다고. 가다가 주막집에 떡 들어가서 쉼을 해 가지고 한밤중께 되니까, 그디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죽다가 살아나고 해서, 단 하루 저녁만 살아서 갈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저 처녀가 아픈가 이유를 알려 재차 하루 저녁을 더 살아 갈려고 그 사람이 복장을 먹었어. 그래서 한밤중께 되니 인기척 소리가 나면서,

“이보야 거기 있나? 없나?”

“왜 나 여기 있다.”

“내가 들어갈까 말까?” 허니,

“들어오든 말든 몸대롭 해라.”

그것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이틀 저녁만 살고 나오려고 하다가, 에, 하루를 저녁만 더 살고 본다고, 신기허니까, 하루 저녁을 더 살아서 혼 열 두시 되니 그 사람이 떡 바꿨디 와서 귀신으로 가장해서 문답을 해봤어.

“이보야 너 어디있나?” 하고 물어 봤어.

“나 이제도록 땡겨도 너 알지 못허게 처래 땡겼다 말이며. 내 문고리에 신을 의탁해 가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무 마을에 가면 사람이 죽는디 그건 어떤 이유냐?” 이렇게 허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땡겼느냐. 여기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큰나무 썩어 빠진 디가 있는데 늪은 여호(여우)가 있어서 그것만 잡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잡을 수가 있나?” 허니 “그것은 가다가 지름을 사서 탁 나모 파진 디 그걸 막아 가지고 지름 비와서 불을 부찌라”고. “제가 뭐 여우가

아모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죽겠지.” “아, 그러냐.”고, 이보엔 흰 문걸쇠를 모질러 가지고 보겠디(주머니에) 집어넣고 땡기지 곤란헌 땡 “이보, 거기 있냐?” 허면 잘 말해 줘.

가다가 보니 풍낭(땡나무)에 구녕이 뚫어진 디가 있거든, 드립다 막아 가지고 불을 붙여도 여우가 죽는 것을 몰라, 죽었지 해서 거기에 원님을 살려 가니 심바람(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내일 가보면 이 사람이 죽어 있겠지 하고 가보니 팬도롱 살아 있거든,

그 사람은 행사(항시) 무신일 이시믄

“이보야, 너 거기 있냐?”

“나 여기 있다.” 그거허고 이논하는 거라. 소문이 나버린거라. 이 사람은 뭘 해도 말 혼 꼭지면 귀신이 물러 가고 병이 나도 고쳐주니까 병을 잘 본다고 궁궐에 유명하게 되어 버렸어.

흥루는 이정승 대감 마누라가 피부병으로 몸이 다 헐어서 약이야 막음대로 있겠지만 어떠한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셔다 병을 보는 거라.

“이보야, 너 거기 있냐?”

“있다.”

보겠두(주머니)를 영 열어서,

“이러한 집의 마누라가 죽게 되었다. 이러하니 저걸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테니.”

“그것 쉽다.”

그때 잡으려고 했던 여회놈이 죽지 않고 도망가기를 이정승 대감집에 도망와 가지고 대왓속(竹林)에서 요동을 부려가니까 아픔도 허고 허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해서 잡겠는가?” 허니,

“그 대왓을 포장, 광목을 썬워서 불을 부찌라. 지가 둘을 더 어시믄 죽을 것이라.”

대왓 더꿀 만한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 슬슬 돌아다니다가 일기가 온화하고 바람도 안분데 대왓을 불을 부찌난 얼마나 잘 부뜰거라. 소리 나명. 대왓에 불은 붙었는디, 여회는 죽고 사는 처래도 모르고 병은 오꼴(그만) 좋았다 말이어.

임금님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어디 가지 말고 나라 의소노릇을 허라고 해도 안허겠다고 하다가 임금말 거역허며는 안된다 말이며.

“그러면 허겠습니까.”

저기 의소로 있는데 한번은 중국 천자(天子)의 마누라가 배가 불러 까딱 오몽도(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 조선에 명의가 있다 하니 보내라 하여. 그 사람이 뽕혀서 간다 말이며. 이번에 까딱 잘못하다간 죽을 지경이라. 이보신되 물어보는 거라.

“이보야, 천자의 마누라가 배가 불러서 있으니, 내가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게된다. 어떡하느냐?”

이보가,

“참, 멍텅구리 헐 수 없다. 그걸 못 허느냐? 이번에 가다가 압록강 너머 만주땅 넘어갈 때는 춤매(작고 날쎄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날 거여. 날개로 치면 워낙 빠르거든. 꿩이 날을 때 한번치면 모가지가 딱 떨어져 나가. 팔라고 해도 잘 안 풀거라. 안풀면 돈을 많이 주면 그 매를 살 수가 있어서 그저 쓰게 되면 지가 보증을 헐테니, 한번 해봐라.”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만주지방을 들어갈 때 손뿌리에 얹혀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 팔라고 해도 안 풀다고 하니 돈을 워낙 많이 주고 사 가지고. 돈에 춤(춤) 바끄는 사람은 없어.

천자신디 갔어.

“너가 명의냐?” 하니

“명의는 못갈망정 좀 합니다.” 하니

이제 이리이리해서 부인이 배가 불러서 죽을 지경인디 저 병만 구완허든 뭐든지 소원대로 해주마. 중국서 산다고 하면 큰 벼슬을 주어 살도록 하고 조선에 돌아가려고 허면 벼슬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병 보게 될 때는 내가 병을 볼 날짜라 허면 사방 문을 열어 자쳐라. 그러면 내가 진찰하러 올라 가겠다.”

그럭저럭 일기를 보다가 바람도 고요한 일기 좋은 날,

“내가 보겠다. 환자를 어느 방에 모셔봐라.”

혼자신디 가까이 가지 않으나 배가 이만큼[한아름]한 사람이 의자에 올라 떡 있으니 매를 도포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며 먹을 것을 잘 주며,

천자의 마누라가 나오니 매를 내쳐서. 그만 매가 날아가서 천자의 마누라 배를 갈라 브러서(갈아 버렸어). 갈라부니 그 갱갱하던 여우가 그 속에서 지랄헌 거라. 여우가 사람으로 변장해 가지고 그렇게 허니까. 죽었 나사나(죽고 보니까) 여우니까 이런 명의가 세상에 없다. 조선에 가지 말고 여겨서 살아 천상군의 만호를 봉하고 여기서 살라고 허나 그 사람은 조선에 가겠다고 허나 걱정이야. 조선으로 돌아가도 병을 보라고 할거고 이보가 끝까지 붙어서 해주지 않을 거. 모가지는 언제가 쏠릴거.

술짝 오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보신디만 말했지.

“이보야, 너 거기 있나? 나는 너 덕분에 이름을 떨치고 어떻게 해서 너가 떨어진다고 허면 나는 죽은 목심이라.”

“그건 내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 안허도록이 해놓고 가겠다.”

중국서 오다가 한곳에 가니, “이제는 내고향에 왔으니 떨어지겠다. 이대로 가다 눈에 무신일이 있을거라”고.

병 보는 눈에 무신일이 있거든. 여기가 고향이니까 떨어지겠다” 허니, 그 후젠 “이보야” 불러도 아뭇소릴 안 허여.

“아이고, 어떻허코?” 걸다가 발을 딱 쳐서 넘어져서 조썩헌(썩죽한) 낭코지로 눈 훌쩍 껍 쭈셔부려서. 눈 병신이라. 이리 나왔어.

무신것을 봐 달라고 허면 “아이고 난 병보는 눈 훌쩍이 영(이렇게)되니까, 난 모른다”고해서 못 보게되니 잘 살았다고.

이보는 중국땅에서 배를 지어 다니다가 파도에 밀려 파손하였는데 그 혼령이 못에 의탁해서 조선에 떠밀려나서 그것을 봉군(주운) 사람이 문고리를 만들어서 단았다 으랐다 허게 되었다.

(홍정표, 男 · 73)

信

仰

指導教授：玄 容 駿
指導補助：高 光 敏
班 員：李 完 鍾 (4)
梁 永 子 (3)
張 銀 心 (3)
朴 相 勇 (3)
林 宣 希 (2)
吳 姬 淑 (2)
姜 忠 旻 (2)
趙 恩 影 (1)

目	次
I. 概 觀	III. 部落信仰
II. 公認宗教	IV. 個人信仰

I. 概 觀

서회선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정자천을 경계로 涯月邑과 접해 있는 翰林邑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歸德里에 이른다.

산이 하나도 없고 큰 산맥도 없으며 해안가에서 산촌까지 비교적 緩晩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8개동을 거느리고 있는 마치 南北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마을이다. 귀덕리는 원래 翰林邑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사동·중동·하동·성로동·신서동은 1리로, 장흥동·장라동은 2리로, 신흥동은 신흥리로 행정구역이 整備되었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歸德里的 古村名은 石淺村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앞바다에 있는 熔岩으로 된 큰여·작은여를 石村島라 부른데서 由來한다고 하며 옛부터 선비가 많았다고 傳한다. 歸德里에서는 효행과 貞節을 기리는 비들을 도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地域의 信仰은 愛鄉之心으로 행해지던 部落祭인 醕祭가, 새마을운동이나 미신打破 等の 政策에 의해 없어지게 되자 원래 巫式祭가 지내지던 할망당에서 部落祭를 지내게 되었다. 公認宗教로는 대부분이 佛教를 믿고 基督教人도 있으며 天主教人은 6명에 불과하며, 아직도 토속민간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I. 公認宗教

歸德里的 公認宗教는 佛教, 基督教, 天主教가 있는데 대부분에 佛教를 믿고 있고, 절은 1리와 2리, 교회는 2리에 있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림포교당까지 다니며 信徒도 극히 적은 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고 토속적 민간신앙을 믿고 있어서 종교의 전파가 힘든 실정이다.

〈佛 教〉

(1) 귀덕1리

① 名稱; 귀덕포교당

② 宗派; 조계종 일봉선종회

③ 위치;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955번지.

④ 沿革 및 現況;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1968年 7月 18日 김춘향(미타신)보살이 대지 280평 위에 (구)법당, 22평과 객사 31평을 보안하여 포교당을 創建했다. 이를 이어 장연종스님이 現 법당을 건립하고 구법당과 객사1동을 요사채로 쓰게 되었다. 장연종스님이 지부장으로 그 스님의 상좌승들이 관음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당內의 불상은 석가상문수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하여 신장탱화, 지장탱화, 독성탱화, 한신탱화, 칠성탱화, 용왕탱화, 고현탱화가 걸려 있다. (역대스님; 1. 장연종, 2. 강자문, 3. 황희철, 4. 문철성, 5. 이규정(現))

濟州島部落誌(Ⅳ)

⑤ 信徒; 귀덕1리를 中心으로 귀덕2리, 금성, 애월, 제주시 거주인 몇명을 포함하여 7·8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중년층 부녀자들이다.

⑥ 運營經費; 특별히 구성된 신도회가 없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며 현 이규정스님(42세) 혼자 힘으로 祭日날 불공행사(사팔행사, 칠월칠석, 칠월백중, 10월제, 정월보름, 동제)때 바치는 불사(사주)로 이뤄지는 형편이다.

⑦ 事業; 現스님은 설법에 힘쓰면서 범종(종각)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꾸준히 地域布教에 힘쓰고 있고, 교도소 위문, 보육원 위문도 하고 있다.

(2) 귀덕2리

① 名稱; 海雲寺

② 宗派; 太古宗

③ 위치; 귀덕2리 해안가 3895번지

④ 設立 및 現況; 현재 제주시 광명사 주지스님으로 있는 守明 金京歡스님이 처음 바닷가 초가의 10평 남짓한 곳에서 부처님을 모신 것이 계기가 되어 사찰로서 자리를 정립하게 되었다. 원래 제주시 관음사 포교소로 애월읍 어도리에 소재했었는데 4·3사건으로 寺刹이 疎開되자 1948年 해안마을로 移安하게 되었다고 한다. 1962년에 법당을 改築했는데 불상은 석가상, 미타상, 관음상, 지장상의 4개의 불상을 奉安하고 신장탱화, 칠성탱화, 어래탱화가 걸려있고 큰북을 비롯한 佛具가 있다.

(역대스님; 김수명(창전주), 김경환, 김수옥(비구니스님), 김광삼스님, 고덕수스님)

⑤ 經費 및 運營; 信徒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어 자체조달한다.

⑥ 信徒; 地理的 위치로 인해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신도가 많다. 약 150세대의 신도가 있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미혼여성이 거의 없어서 10·20대는 적고 30대에서 80세까지의 여자신도가 골고루 分布하고 있는데 귀덕1리, 2리 거주자가 대부분이고 신흥동은 없다. 외지로 나간 이들은 후세대까지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緣故地를 찾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서귀포, 부산, 서울까지도 신도가 분포하고 있다.

⑦ 規模; 대지는 30평인데 법당은 요사채 2채(30평)와 대웅전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법당전평은 20평.

⑧ 절터의 由來; 海雲寺는 역사적 고증은 없지만 口傳에 의하면 이 垆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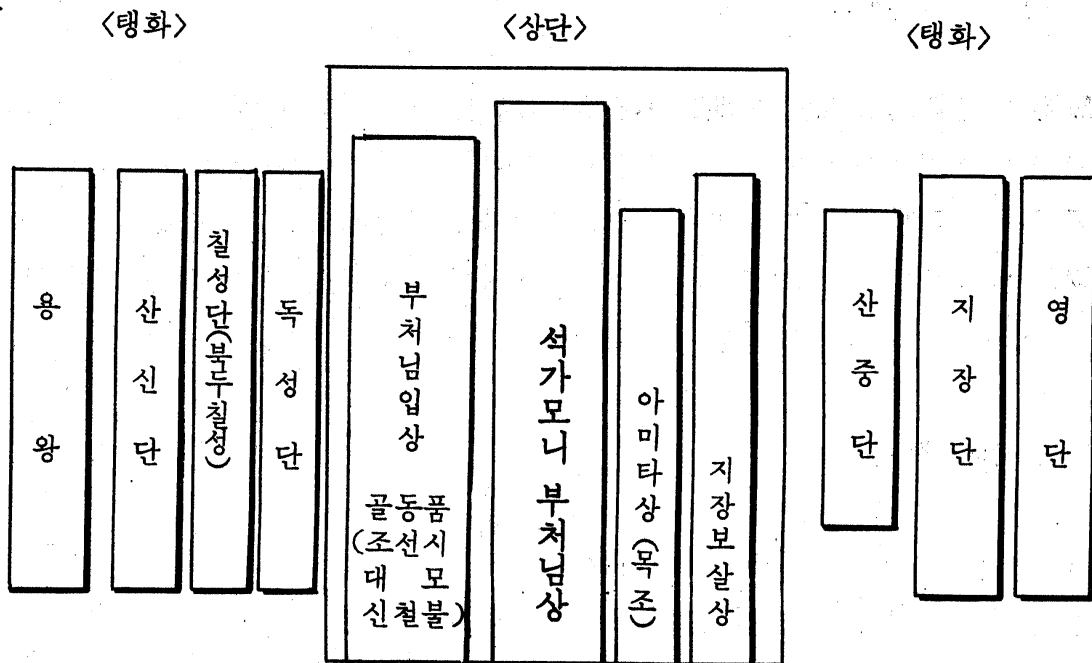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高麗時代의 거대한 寺刹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形象이 가잡이(개구리)가 앉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가잡이터’ 일명 ‘개구리터’ 라고 한다. 절터 앞에는 湧泉인 “부처물”이라는 生水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욕하면 만병통치한다는 傳說이 있어서, 백중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옛날에는 사찰기와도 보였으나 지금은 마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 이 절터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⑨ 布教活動; 현재 대표는 33세의 高德洙스님으로 법명이 釋性律이다. 스님은 자체내실을 기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어서 在所者에게 정기법회를 하고 불교신자가 아닌 지역기관장을 초빙하기도 하여 학생법회를 통한 교육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⑩ 法堂內部; 다음 그림 참조.

〈그림1〉 法堂內部圖



〈基督教〉

- ① 名稱; 대한예수교장로회 귀덕교회
- ② 宗派; 대한예수교장로회

濟州島部落誌(Ⅳ)

- ③ 敎派; 장로교 통합측
- ④ 位置;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3740-2번지
- ⑤ 沿革; 1951년 5월 6일 한림교회당에서 나신동 기도처로 분립하여 설립되었다. 동년 5월 9일 문을생, 고희림, 최용철, 안세민, 김광전, 김익순, 홍창의, 홍승규 등이 귀덕리 3749번지 문을생집사택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여 매주 삼일저녁마다 모였다. 1957년 3월 9일 귀덕리 3740번지를 교회대지로 매입하고 4월 21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59년 10월 7일 제주노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귀덕교회로 분립 허락되었다. 현재 강공하 전도사가 사무하고 있는데 신자는 50여명에 달한다.

Ⅲ. 部落信仰

1) 포제(酺祭)

酺祭는 愛鄉之心으로 행해졌는데 3·40年前부터는 祭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해방후부터는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등의 국가정책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포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제보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한 제보자의 기억을 통해 그나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제보자; 양우종, 男·68세)

- ① 名稱; 酺祭, 또는 마을제
- ② 祭神; 天神
- ③ 祭日; 상정월에 좋은날을 擇日한다.
- ④ 祭場; 祭場은 처음 연대동산에서 행해지다가 「대왕이」로 옮겨졌다. 대왕이밭은 그 주변지역을 대웅이, 대웅밭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웅이'인 듯하다. 圖式에는 대웅혈이 있다고 하며 대웅이 못은 現存하고 있다. 제보자의 집터를 대웅이라고 불렀었다고도 한다.
- ⑤ 祭儀管理; 祭儀는 鄉會에서 결정을 하는데 회소집은 警民長이나, 鄉長(리장, 구장)이 소집한다. 이 향회에서 祭官이 선출되며 경비도 결정된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⑥ 祭官; 제관은 8개동에서 고루 선출되고 祭日 3·4日전에 합숙한다. 다른 마을과 같이 12제관이 行祭하게 되며 節次도 다른 마을처럼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祭官의 종류로는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謁者, 贊者, 奉爐, 奉香, 奠爵, 司樽, 典祀官이 있다.

⑦ 入祭; 3일전부터 대왕이에서 장막을 치고 취사를 해결하며 護身齊戒한다. 부인인 경우는 식사제공과 祭物을 차리는 경우 이외는 出入이 禁止된다.

⑧ 禁忌; 뱀이나 개고기 등은 먹지 않으며 초상이 나거나 누가 해산하게 되면 祭는 연기된다.

⑨ 祭服; 청의도복을 입고 儒巾을 써서 整衣冠한다. 그리고 제복보관은 개인이 한다.

⑩ 祭物;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메는 五穀에 犧牲, 五果, 脯肉, 猪肉 등이 올려진다.

⑪ 豫兆; 예조는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⑫ 飲福; 祭가 끝나면 고기를 삶아 반을 나누어 먹는다.

2) 堂祭(제보자; 양우중, 男, 68)

堂祭는 원래 심방에 의해 巫俗으로 행해졌으나 해방후 部落信仰인 酬祭가 행해지지 않게 되자 儒式部落祭로 변모되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당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특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다. 현재 귀덕리에는 堂祭가 끝난후 심방이 巫式으로 비는 儒巫혼합의 특이한 형태로 변모되어 行祭한다.

① 名稱; 할망당

② 所在地; 귀덕1리 '돈지'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③ 祭神; 바다신인 요왕할머니(선왕)

④ 祭日; 正月 첫 未日로 하는데 부락에 초상이 나거나 불길한 일이 있을 때는 다음 未日로 한다.

⑤ 祭官; 이장 또는 船主로서 나이 많은 분이나 그 告祀에 대해 잘 아는 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事2人, 鄉老1인으로 구성한다.

⑥ 經費 및 運營; 옛날에는 家戶穀으로 준비했는데 봄에는 겉보리 5되정도, 가을에는 조를 내었다. '그러면 하인(보통 심방)이 제물을 차렸다. 지금은 필요한 만큼 船主들이 돈을 내어서 차리며 선주들은 개인적으로도 제물을 준비한다. 이 때 경비는 이장과 선주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⑦ 祭物; 정확한 규정은 없고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메, 과일, 고기(회생, 해어), 폐백 등을 올리며 祭酒는 옛날에는 淸酒를 썼으나 지금은 소주나 甘酒를 쓰며 폐백은 광목, 베, 무명, 명주 등에서 1필을 한다. 각 船主들은 개인적으로도 祭物을 따로 준비한다.

⑧ 祭服; 정결하고 깨끗한 한복, 옛날에는 관이나 유건을 쓰고 띠를 둘렀으나 지금은 堂祭에는 하지 않는다.

⑨ 參席範圍; 1리, 2리 사람들이 참석하고 신흥동은 어촌이 아니므로 참석하지 않는다.

⑩ 入祭; 酬祭와는 달리 그리 엄격하지는 않으며 준비하는 집에서 하루 정도 합숙하면서 밤을 지낸다.

⑪ 行祭; 3獻官이 儒敎式 祭法으로 行祭하고 나면 이어서 심방이 요령 등을 들고 나와서 巫俗式으로 비념을 하고 무사고를 빌어준다. 심방은 祭에 참석하지 않는다.

⑫ 禁忌; 정성이나 금기가 그리 엄격하지 않으나 개고기·말고기를 禁하며 喪家를 피한다.

⑬ 豫兆; 제가 끝날무렵 심방이 쌀점으로 삼판점을 쳐서 吉凶을 예언한다.

⑭ 飲福; 준비한 집에서 고기를 삶고 썰어서 반을 나누어 먹는다.

⑮ 개인별비념; 堂祭가 儒式 部落祭로 行祭되는 반면 집안에 궂은일이 있거나, 가족이 아플 경우 혹은 그 액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망당에 심방을 데려다가 비는 경우가 있다.

조사팀은 직접 그 비념을 듣고자 메를 하고 해어 군 것, 과일, 빵, 향, 쌀 등의 제물상을 차리고 심방으로 하여금 비념을 하도록 청했다. 할망당에서 비념

을 하는 동안 조사팀은 녹음을 하고 사진촬영, 메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개인별비념은 다음과 같다.

〈할망당 비념〉

(송씨할망에 2拜, ¹⁾결맹바깥에 2拜 바다를 향해 2拜를 한 후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삼판을 꺼내놓고 주문을 외기 시작)

윤유월달 초이들은 근당하곡 전라남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송씨 할마님 낳는날은 생산초지 죽는날은 물고기²⁾ 초지입네다.

시·읍등에서 잠시 놀래오랏단 할마님 우망적선 오랏쭈다. 적선하여 근 창고³⁾독 모두 들여놓젠 해연 오랏수다 성은 고씨고, 현씨고, 이씨 외다. 할마님아. 관승³⁾에도 빨리게 맏서 입승⁴⁾에도 빨리게 맏서. 우리 여핏집⁵⁾이나 놈사는 집이나 우리나라 곳뽕손 놈의나라 상한손⁶⁾ 들게 말아줍서.

아, 할마님 먹을년등 시내웁서. 입을연등 시내웁서. 대천 한간 질날 일⁷⁾을 나게 맏서. 이거봅서. 어느건 공이 아니듬네까. 어느젠 저생 아니듬네까, 저승돈은 화폐지전 이승돈은 보급만량⁸⁾ 천금만량 영 험네다. 할마님아.

멩장수 시겨줍서.⁹⁾ 복장수 시겨줍서. 할마님아. 오넬은 우망적선 해

1) 입구:결맹에는 雜神이 있다 하여 절을 한다.

2) 物故: ① 名士가 죽음 ② 죄 지은 사람을 죽음

3) 官囚으로 경찰서 등을 말함

4) 관승과의 효과

5) 옆집

6) 독한병

7) 초상이 나면 집 안팎 구별없이 왔다 갔다 신발을 신고 다니므로 더러워지는 현상

8) 돈 놀리는 것

9) 命을 길게 하여 오래 살게 해 달라는 뜻

엿수다. 오늘은 공거먹영 목걸리곡, 애걸리곡, 신걸리는 법이웨다.

조상님은 신을풀민 호락파락 허는 뱀(법). 생인은 본을 풀민 칼선다리
눅는 법이웨다. 할마님아. 이 조손들 땡기는데 일년열두덜 무스태평 시
겨줍서. 발도촉게(차게) 맵서. 손도 촉게 맵서. 먹을연들 신해섭서. 입을
연들 신해섭서. 열두가지 추원반상¹⁰⁾ 출려오랏수다. 할마님아.

모든걸 다 도막아줍서

스해(四海) 안은 열두나라 스해 밖은 열시나라. 신도봉향 상감상님 정
합네다. 송씨할마님아.

축일염날¹¹⁾ 험네다마는 오넬은 이 조손덜 앞질이 급허영 영허염십네
다. 시에 입중이 어디서 오라근 그냥 갈순 없으시영 허는 길이 되여십네
다. 명도명감 삼시왕(?)초스, 이승초스, 강림도스, 저승초스 고향네다.
차에 곶양 죽어가던초스 물에엄사하던,초스 낭에 절영허던 초스,어제 그
지계¹²⁾ 바쁜초스, 오닐넬¹³⁾ 행의 바쁜 삼시왕 초스덜 고향네다.

어떤 조상 해마다 연당을립네다. 외아덜 조상님들도 일혼으덜 도명감
천지천왕 얻어당 살려줍서. 모든 조상에서 굶은액면 막아줍서 영험네다
조상님아. 어허 이디오랑 살아져도 아니땡기는 사름은 아니 땡기는데.
꿈에 선몽혈¹⁴⁾ 일 막아줍서. 남가일몽혈 일 막아줍서. 조상님아.

이절 저절 막아줍서 빙네다. 올 금년 여름삼설 막아줍서. 겨울삼설
막아줍서. 저울삼설 막아줍서 영험네다. 조상님들 굶은 일행이라도 모
든 것 다 도막아줍서. 허여허.

(심방; 저잔 가그네 저되 휘아덩 또 다시 휘아웁서)

(조사자; 아 잔 저되강 휘아덩 마썰?)

[잔에 났던 술을 궤에 부은다]

다 거느령 있읍네다. 올 금년 대수대동 시켜줍서. 백수횡령 막아줍서.
조상에서 뉘¹⁵⁾ 막아줍서. 아자도(앉아도) 천리바랩네다. 사아도 멀리

10) 음식을 잘 차린 것

11) 염소날

12) 그저께

13) 오늘·내일

14) 現夢

15) 모두

랩네다. 에하, 축일염날 한달육장¹⁶⁾입네다. 조상님네들 조손들 멩기는
디 발복되게¹⁷⁾ 시겨줍서. 열에가도 도명막읍서. 스물에 가도 도명 막아
줍서. 천도도액 막아줍서. 액수 액면을 모두 다 신 굴리멍 도막읍서 영
협네다. 천신을 두고 만신듭네다. 만신두고 동으로 오는액 서으로 막아
줍서. 서으로 오는 액이랑 동으로 막아줍서. 할마님아. 천수도액 막아
줍서. 두루 막아줍서. 멩인장수 시겨줍서. 복장수 시겨줍서.

(심방; 자, 팍¹⁸⁾ 가정 오라서)

음. 영협네다.

(심방; 팍덜 어서, 저 소지 솜서)

[입구쪽에서 메 밑에 깔았던 소지를 사른다]

이영 허여집네다. 천두도액 얻어당 보급만냥 흥협네다. 천금만냥 올
립네다 高氏로 몇 살인고?

(조사자; 고씨로 서른 여섯마썸)

서른요섯살, 현씨로 몇인고?

(조사자; 현씨로 쉰 넷마썸)

현씨로 쉰넷, 다시 李氏는?

(조사자; 李氏 확 아불라게/스물요섯마썸)

이씨로 스물요섯입네다. 이 소지 올린대로 멩(命)줍서. 복줍서. 억만
석으로 대령홉네다. 수만석으로 대령홉네다. 수만석으로 대령홉서.

[중얼거리며 삼판을 꺼내 점패를 본다.]

올해 돈 하영 버슬쿠다. 고씨어른.

(조사자; 아이고 고맙수다)

[쌀을 건네주자 받아 먹는다]

새해 큰 밧을 사나 집을 사나 큰 우명날 일 나쿠다.

[참석자들 모두의 점패를 봐준다]

(심방; 닐 맏고)

(조사자; 나마썸. 스물 둘 마씨)

16) 한 달에 오일장이 여섯 번 있는 것을 말함

17) 發福: 복이 되게

18) 성냥

濟州島部落誌(Ⅳ)

(심방;성은 뒛고)

(조사자; 양씨우다. 할머니 난 어땡허쿠과)

(심방; 는 새해 나문 시집가켜)

[일동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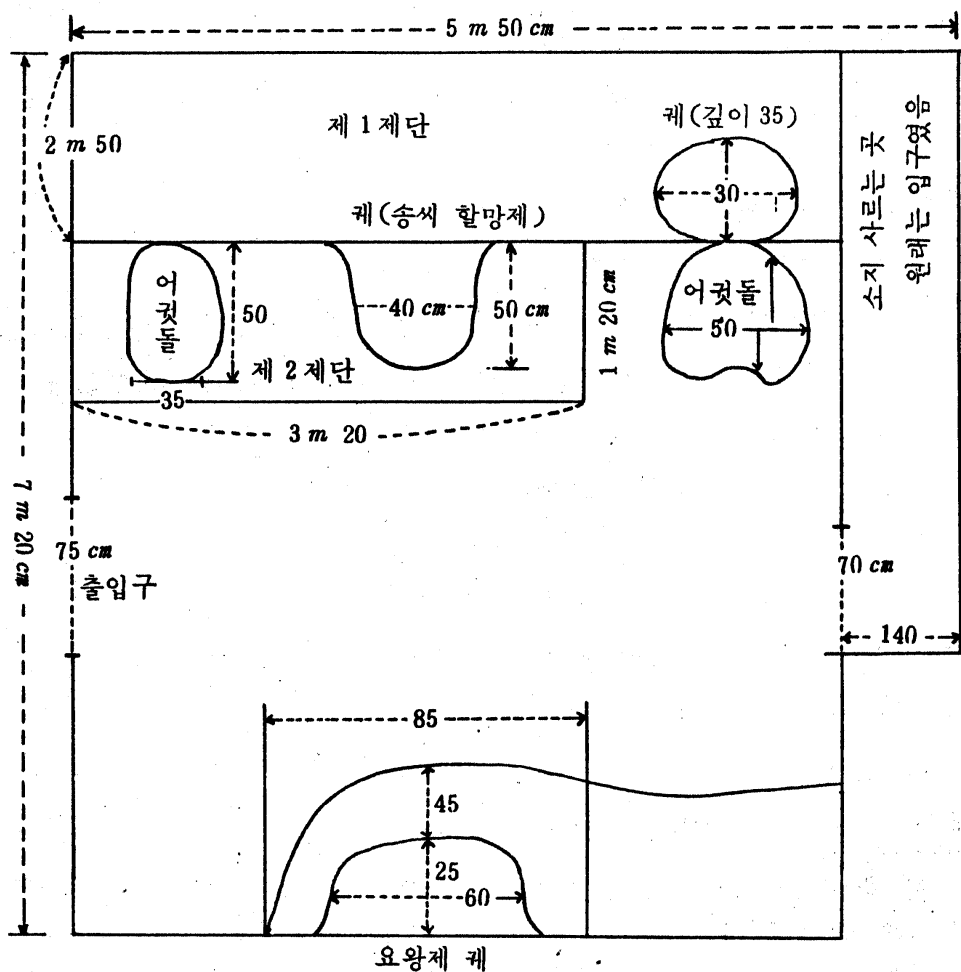
할마님아 몬 막아줍서. 창고고득 들어 갑네다. 할마님아.

[케에다 밥 3술을 던지고 빵, 과일, 고기를 떼어 케에다 넣은 다음
밥, 과일, 빵, 고기를 넣고 술을 부어 잡식을 하고 그것을 요왕케와 결
멩이 바깥쪽, 원래의 결멩이(지금은 소지 사르는 쪽)에 캐우리고 나서 마
지막으로 제1제단 위에 뿌린다]

[음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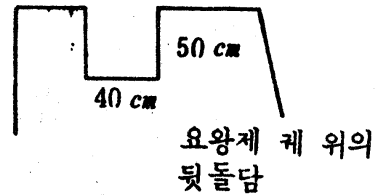
⑩ 할망당 도식

〈그림2〉 할망당 도식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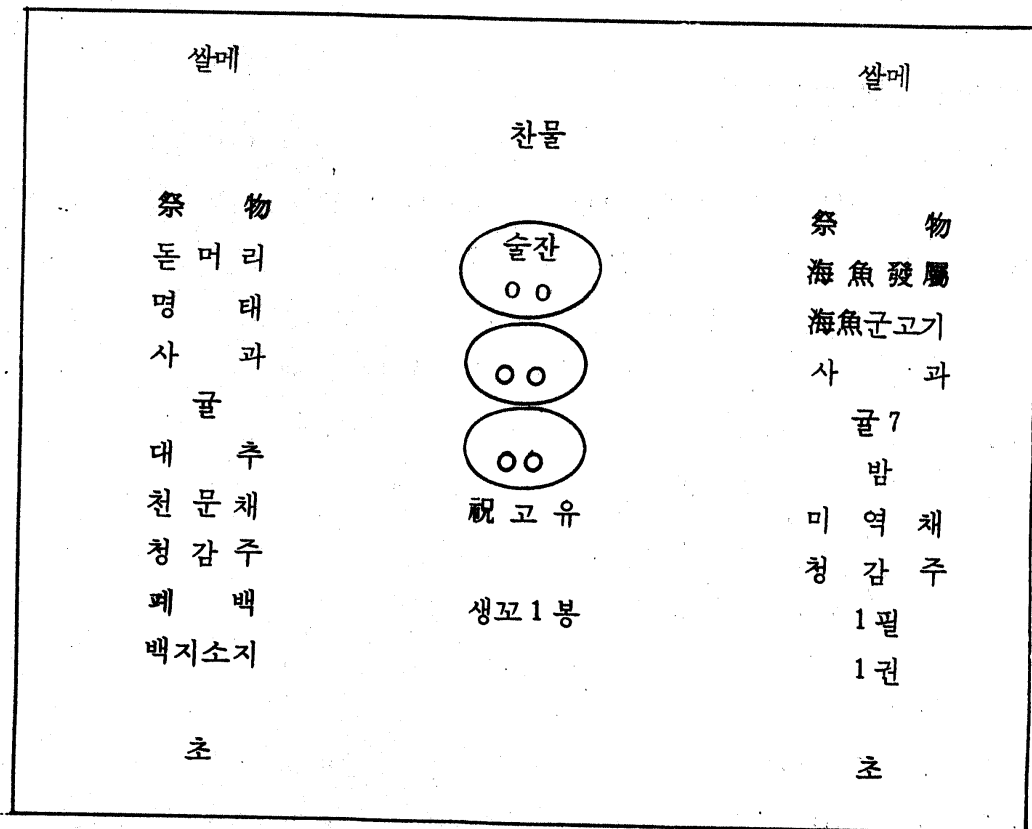
- 담 높이 : 1 m 35 cm
- 제 1 제단 높이 : 80 cm
- 제 2 제단 높이 : 30 cm
- 송씨할망 케 깊이 : 30 cm
- 요왕제 케 깊이 : 20 cm



3) 祈雨祭(제보자; 홍태권, 男. 78세)

祈雨祭는 가뭄이 들 때 擇日하여 天神에게 祭를 지내면서 비가 오기를 비는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醺祭와 同一한 方法인 儒式部落祭를 지내게 된다. 祭場은 '대왕이' 이며 祭物이나 제복 등도 포제와 같다.

〈그림3〉 陳設圖



Ⅳ. 個人信仰(가정신앙)

1) 土神祭

(제보자; 李春植, 男, 59, 귀덕1리)

土神祭에는 儒式, 巫式 둘 다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儒敎式 祭法에 의해 2년에 한번 행한다고 한다. 토신제는 성격에 따라 葬土神祭, 家新築土神祭, 平安土神祭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심방을 불러서 평안무사를 비는 平安土神祭의 경우는 '코시'라고도 한다. 그런데 儒式의 경우는 '코시'라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성격에 따라서 祝文의 내용도 달라진다. 平安土神祭의 경우 祝文은 3회 계속해서 읽는다.

① 祭神; 土地之神位(前)

② 祭日; 집의 大主와 아이들의 생갑(생기)을 맞추어서 택일한다.

③ 祭場; 집 안에서는 얹고 마당이나 집 뒤의 정결한 장소를 택한다.

(天神이므로 서각터진방(공방)으로 돌려서 陳設한다)

화장실이나 퇴비장과 먼 정결하고 조용한 곳에서 한다.

④ 祭官; 집안의 나이 많고 유식한 남자 1명이 제관이 된다.

⑤ 祭服; 儒巾을 쓰고 한복 입은 위에 다시 도복을 입는다.

⑥ 祭物; 쌀메2器, 조메2器, 과일五果, 돼지머리, 해어, 꿀감주, 폐백은 무명이나 광목, 시령목1필, 백지.

⑦ 禁忌; 여자들은 出入을 금한다.

가) 葬土神祭

사람이 죽어서 안장할 때 土神에게 申告하는 祭이다. 장사를 지내기 전 시간을 택하여 葬地에서 지낸다. 安葬時 제관이 祝을 고할 때 뽕우는 소리, 말우는 소리가 나면 吉하다고 한다.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祝文〉

土地之神 令爲訓長(處士, 學生) ㉡ ㉢ ㉣(여자인 경우 宜人洪氏 등)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醴齊 牲(魚)幣祇薦 于神 尚饗

나) 家新築 土神祭

新築을 申告하는 것으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子正을 기해서 행하고, 싸움을
않는다거나 나쁜 것을 보지 않으며 장사 난 데나 불길한 장소는 삼가한다. 집
안의 모든 식구가 정성해야 하며 약 1주간은 몸단정을 해야 한다.

〈家新築 土神祭 祝文〉

土地之神(茲以) 宅主 ㉡ ㉢ ㉣ 之陽宅營建家舍(宅營建茲地, 茲地家舍, 地
營建家舍)

神其保佑 永亨碩福 如山之固 如石之確

億萬斯年 棟宇如昨 伏願 上樑之後

半祥畢至 萬福咸臻 謹以醴齊 粢盛(清酌脯醢) 幣脯

庶品祇薦 于神尚饗(祇薦于神 尚饗)

다) 平安土神祭

일년 열두달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祈願하는祭이다. 正月에 택일하
여 지내는데 집안에 不淨한 일이 있을 때는 재택일한다.

〈家土神 祝文〉

維歲次 某年 某月 干支 ¹⁾○○○ 敢昭告于

土地之神 宅主 ㉡ ㉢ ㉣ 爰居 爰處

莫非神效 衣土食之 莫非神效 欲報功效 物雖菲薄 誠則在斯 身雖不精 心則
極誠 伏惟明神 含弘光大 厚德載物 何福不致 何災不滅 顧我微生 特垂冥佑

1) 헌관 이름

濟州島部落誌(Ⅳ)

有罪斯赦 有怒斯解 有魔斯滅 有邪斯退 轉禍爲福 致祥彌災 子孫昌盛 賜壽
賜福 五穀豐登 育畜敏滋 衣食豐足 口舌消除 水火不傷(及難脫)
使我一室 永垂福祿 謹以醴齊粢盛 牲(魚)幣帛果 庶品祇薦 于神 尚饗

◎홍태권 할아버지가 제공한 토신제 축문(제보자 홍태권, 男. 78)

〈平安土神祭 祝文〉

維歲次 丙戌 十二月 某朔 謀日 干支 獻官○○○ 敢昭告于(神祈禱祝)
明堂土地之神 伏以 宅主 某姓名 卜居茲地 于今年久 鑿尾之慶 莫非神休
茲以吉辰 齊誠仰禱 伏唯明神 特垂陰佑 降我以福 增我以壽 兒孫無恙 垂裕
永世 百穀大登 洋洋滿家 六畜蕃息 俾無夭折 時氣疫癘 論於海外 家用平康
萬事如意 松茂竹包 鳳鶴呈瑞 千萬頤祝 報賽無斁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
式陳 明薦尚饗

明堂 土地之神位 前

2) 明鑑祝(제보자; 홍태권, 男 78세)

생업의 풍요를 비는 新年祭로 농사의 풍성을 기원하며 祭神은 明鑑府君之神
이다. 祭場은 깨끗하며 조용하고 정결한 곳에서, 儒式 제법에 의해 行祭한다.
祭日은 擇日하며 정성을 다한다. 기타 祭物 등은 앞의 土神祭와 같다.

〈明鑑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明鑑府君之神 伏以 宅主 某○○
資衣資食 唯神之德 家眷安保
惟神(紳)之德 萬事無憂 惟神之德
今迎新正 擇茲吉辰 齊誠伏祝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於赫明神 特垂陰隲 保轉爲福
反凶爲吉 五穀豐稔 六蓄蕃息
永賜祉繁 萬萬祝手 報賽永年
謹以醴齊 粢盛魚幣 庶品祇薦 于神尚饗

3) 삼승할망비념

삼승할망은 產育神이다. 出產과 生後의 백일 첫똥 등 기타 수시의 비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례를 행한다.

제물은 메 2개, 떡, 香火, 물 등을 차려 놓고 비념을 하는데 다음 經을 7번 읽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제보자 홍할아버지는 책자에다 축문을 조목조목 적어 두어서 우리 조사팀의 작업이 꽤 수월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차츰 적극적이며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다. (제보자: 홍태권, 男·78세)

〈佛說童子續命經〉

(제보자: 홍태권, 男·78세)

天上天下受一薩 天上天下受一薩 地下天上受一薩
天上四方受一薩 天上八方受一薩 地下諸神受一薩
今茲童子已丑生 朴承復增福壽 三十三天增福壽
二十八宿增福壽 阿修輪天王增福壽
帝釋天王增福壽 上方大梵天王增福壽 大自在天王增福壽
化樂天王增福壽 兜率天王增福壽 毘沙門天王增福壽
下方轉輪聖王增福壽 日天子王增福壽 月天子王增福壽
六辨天王增福壽 日光菩薩增福壽 月光菩薩增福壽
無碍菩薩增福壽 古往今來菩薩增福壽
四方天招官增福壽 丙寅生朴承復 年絕兒限童子神
月絕兒限童子神 日絕兒限童子神 時絕兒限童子神
胞絕兒限童子神 八卦兒限童子神 東方青帝青衣夫人童子神 南方赤帝衣夫

濟州島部落誌(Ⅳ)

人童子神 西方白帝白衣夫人童子神 北方黑帝黑衣夫人童子神

中央黃帝黃衣夫人童子神 北方大星善童子神 惡童子神

天吞 地吞 年吞 月吞 日吞 時吞神

天樂 地樂 年樂 月樂 日樂 時樂神

三十三天童子神 八萬四千雷公童子神

丙寅生 高興垣 某年 某月 某日 某時 生兒

短命疫殺 一時消滅 善神守護 永無灾殃

延年益壽 乃至一百二十歲 衣經正法

如佛如法 如僧說此經已 一切天衆鬼神

信受奉行 作禮而法 金剛壽命 陀羅尼經

조사팀은 또한 송치선 할머니를 찾아서 巫式비념을 들었는데 전부 듣지 못해서 일부만 옮긴다. (제보자; 송치선, 女·80세)

천왕불도 할마님 인왕불도 할마님 얼굴촉진 혼합천주 서신국 대적상 맹진국 할마님, 우리아기 물주멍 키웁서 춤외키우듯 물웨키우듯 키와줍서.

요놈의 딸은 혼살적엔 때를 몰랐다가 두살적엔 때를알앙 어머니 젖가슴에 두들긴 죄목, 세살적엔 아버지 동머위에 앉아서 혼 죄목, 혼 식설엔 하르바님 동머위에 앉앙 삼각쉬염 흘튼 죄목, 혼 니설엔 성지간에 불목허곡, 혼 다섯살엔 동네방상 모두 불목시기곡, 혼 9섯살엔 날랫멍석 허끈 죄목, 십오대왕신디 축수허난 물어신디 가서 귀양보내불라.

눈 베롱헌 것 괴영 혈 순 어선 다시 축수허난, 일혼9덥 상거슴 통쇄허영 무쇄석괵에 담앙 드리쳐불라.

물 우이도 상상봉 물 아래도 상상봉 부에낭 알로 간 지쳐부난, 물장수 때 만나진 올라오랜허난 인동수 느려간, 어찌호니 나이름자 새졌느냐호난 인동수 때 만나진 올라오랜허연 올라왔수다.

집시하르방 아덜들은 금석괵 남은여 봉갓수다. 남은여 봉갓수다.

우리 아기도 꺾허민 번지준다. 송씨 하르방 가난허곡 서난허난 구쟁기나 뉘아다 먹젠 갓단 겁데기랑 날도라, 담배석괵 호져.

어찌 귀신인가? 생인인가? 나 생인입니다. 어찌 생인이 무시에 속할 수가 있느냐? 죄가 만만 내어드민 용왕 뚫입네다.

어승할망으로나 들어사지겠느냐? 예 들어사겠습니다. 앞 이망엔 돌님이요, 뒷 이망엔 벨님이요, 왼손엔 단소육갑 마당호난 ○○허연 아이고 트기줄 줄은 알곡,해복 해청털 줄은 몰라지만 오무순이 지말은 잘못 대답허엿구나.

〈下略〉

4) 龍王祭

조왕제는 부엌을 맡은 神인 龍王을 위하는 것이다. 祭日은 집안식구들의 生氣에 알맞는 날로 擇日하며 祭場은 조왕(부엌)이다. 祭神은 龍王之神 神位前, 곧 3德諸 조왕이다. 조왕신에게 기원하는 한편 가내의 諸神(문전, 안칠성, 밧칠성)에게 가내의 안전을 빈다. 3德者 조왕을 모시므로 祭物도 메3器, 떡3개, 과일 3器, 해어군것 3개를 올린다. 그러나 생것으로는 올리지 않는다.

龍王祝은 3번 읽는데 그때마다 소도 3번 사른다. 조왕제가 끝나면 龍王經(조왕歎喜經)을 7번 독경한다. 몸이 아프거나 동티가 났을 때는 역시 擇日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살귀를 내쫓기 위함이고 사발에 흰쌀 1器, 찬물 사과 등을 올린다.

〈龍王祝〉

龍王之祝 伏以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六十甲子 二十八宿 十二請神之中 尊靈爲首
明察人心 占之禍福 賴我恤我 龍王之德
保我佑我 龍王之德 致我萬福 龍王之德
消我千災 龍王之德 使我一家 男女老少
路中得病之厄 縣官非橫之厄 年月日時
千災萬厄 一時消滅 暗中光明 敗中得成

濟州島部落誌(Ⅳ)

危中得安 病中得差 轉禍爲福 莫非○○

竈王之德 謹以醴酌 庶羞祇薦 于神尚饗

① 조왕경(竈王歎喜經)

稽首莊嚴竈王神 十方照曜十光明

威光自在竈王神 土地龍神皆歎喜

天上仕官竈王神 闔家人衆揔安寧

內外吉昌竈王神 金銀玉帛滿堂進

常逢吉慶竈王神 惡鬼邪神退散去

志望周成竈王神 億善萬福皆具足

離障安住竈王神 夫婦家人增福壽

災殃永滅竈王神 百病消除大吉祥

曾時守護竈王神 百穀勝出養蠶倍

救護舍宅竈王神 一切諸神皆歎喜

② 竈王經(몸이 아플때, 동티 났을때)

平方青土 將軍青土 婦人青衣 竈王青衣 童子南方 赤土將軍 赤土婦人 赤衣竈王 赤衣童子 西方白土 將軍白土 婦人白衣 竈王白衣 童子北方 黑土將軍 黑土婦人 黑衣竈王 黑衣童子 中央黃土 將軍黃土 婦人黃衣 竈王黃衣 童子五方 諸神靈位前

今此家內 ○居男女老少 歲月日時之厄 一一保佑之意 茲以祈禱伏氣

尊靈特垂 弘福增福 增壽永壽 好福好而 臨我愛之 恤之憐之 惜之

枯木逢春 賴被生老 轉禍爲福 變離化吉之意

今日吉日 禱于皇天 祈于靈神 雜神邪神 速去千里 青帝竈王 赤帝竈王 白帝竈王

比帝竈王 黑帝竈王 黃帝竈王 五萬八萬竈王

四萬五千 六百竈王 與我同論 二十四方 諸邪鬼噯 急急如律 令娑婆呵

5) 七星祭

七星祭는 북두칠성을 위한 巫儀로서 長壽와 福을 비는 祭이다.

祭神은 七星之神 神位前으로 蛇神이 칠성이 아니고 환생한 것에 불과하다.

祭場은 괴광(庫房)으로 안칠성, 밧칠성을 함께 지낸다.

祭日은 가족 生氣를 맞추어 擇日하며 동티가 났을 때는 아픈사람 生氣에 맞춘다.

祭官은 한 사람이며 한문을 알아 祝文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빌어서 하기도 한다.

祭物로는 술은 오르지 않고 메7器 찬물1, 폐백으로는 무명, 시령목, 명주, 베 등 1필을 한다. 그런데 폐백을 열자 올리면 天命을 기원하는 것이 되며 열 두 자 올리면 福을 기원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절은 3拜하고 祝文을 한번 읽을때마다 소지를 살라서 3번 사르게 된다.

禁忌로는 개나 말고기를 금하며 집의 出入路에 금줄을 쳐서 不淨人의 出入을 금한다.

〈七星祝文〉

(例1)

七星之神 伏以 海東朝鮮 全羅南道 濟州島 邑 里 區○俗居小人某姓名各年幾歲 年久月深 未陳誠意 罪罪臯𩇐 萬萬惟神 伏惟諸罪能滅 靈神仰禱

(例2) 몸이 아플 때, 동티가 날때

七星之神 伏以 海東朝鮮 全南 濟州島 翰林邑 歸德里 卜居茲地 俗居小人宅主姓名 某孫 月久日深 未陳誠意 今以吉辰 靈神感應 伏惟尊靈 心實惶恐 所○○○ 蠶虫民生 何知臯崇 敢告厥由 子孫卦病 小無差僚 神其保佑 碑無後艱 碑慈渾眷 九疇登豐 充溢露積 千灾萬厄 隨時消滅 無藥自僚 子孫安平 永賜祉繁 六畜蕃昌 永世無極 謹以華水 庶差○○ 伏願泰伸 尙饗

濟州島部落誌(Ⅳ)

6) 船王祭(배고사 뱃삭망)

‘船王’이란 배를 관장하고 수호해 주는 神을 말하며 船主가 출어준비하고 나갈 때나 풍어 후 감사례로 선왕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배를 부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지만 배를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거의 선왕제를 하고 있었다.

귀덕1리, 2리, 수원리 용운동에서 각기 선왕 모시는 계 약간씩 달랐으며 수원리 용운동에서는 船王을 女子로 보고 있으며 귀덕1리, 2리에서는 男·女로 구별하여 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인들은 배고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① 祭名; 일명 초하루보름제라 한다.

② 祭神; 배를 관장하는 船王, 선주는 출어준비하고 나갈 때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③ 祭日; 매월 음력 14일과 그믐날에 오후 밀물 때를 택하여 보통 저녁에 行祭한다.

④ 祭場; 船內에서 祭를 지낸다.

⑤ 祭物; 간단하게 차린다. 메, 고기, 술, 과일(절기에 따라)을 올리는데 메는 3甕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물, 그물, 기관실에 준비하며, 작업종류에 따라서 잡귀분으로 메1기를 더올려 4甕을 준비하기도 한다.

⑥ 行祭; 1拜하고 약 5보쯤 뒤로 물러서서 목례를 하고 이물, 기관실, 고물 그리고 배주위를 돌면서 케우린다.

⑦ 祭服; 평상시 입는 옷으로 깨끗한 것을 입는다.

⑧ 禁忌; 부녀자들은 배에 오를 수 없으며 제관은 제물 차릴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자를 보더라도 외면해 버린다.

⑨ 豫兆; 기후가 나쁠때 미리 공중이(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은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선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한다.